민족 민주
열사 · 희생자
자료집

살아서 만나리라

인권정보자료실
CPb1.10

민족 민주 열사 · 희생자 자료집

인권정보자료실
CPb1.10

# 살아서 만나리라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민족열사 · 희생자 추모 (기념) 단체 연대회의

# 살아서 만나리라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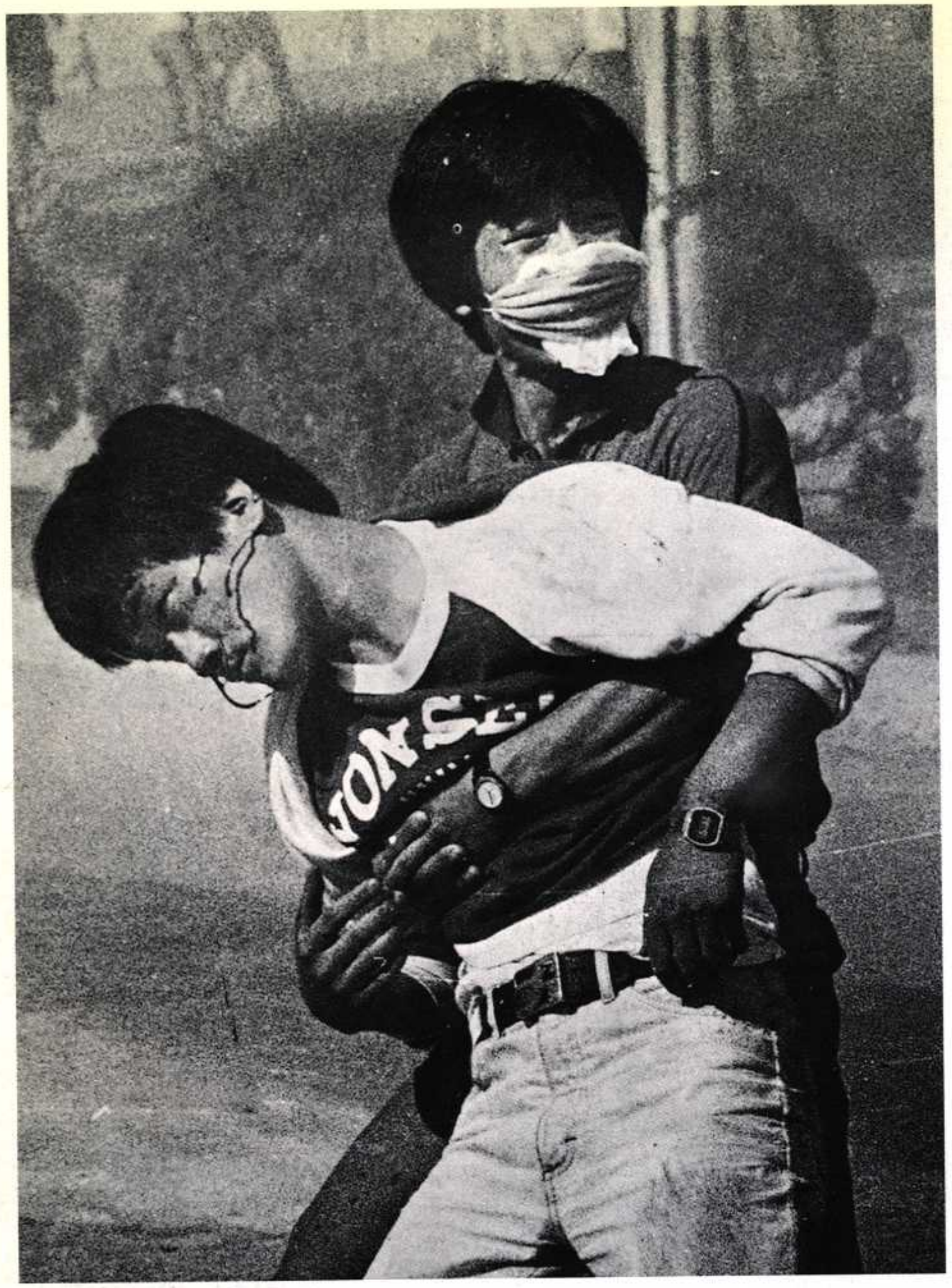
■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노래의 밤이 기나길다
이별이 입을 열 때 몸을 뒤척이다가
이별이 끝나기 전에 굽이치며 벌써
파란만장, 슬픔의 장관이 펼쳐진다
나도 노래처럼 그대를 부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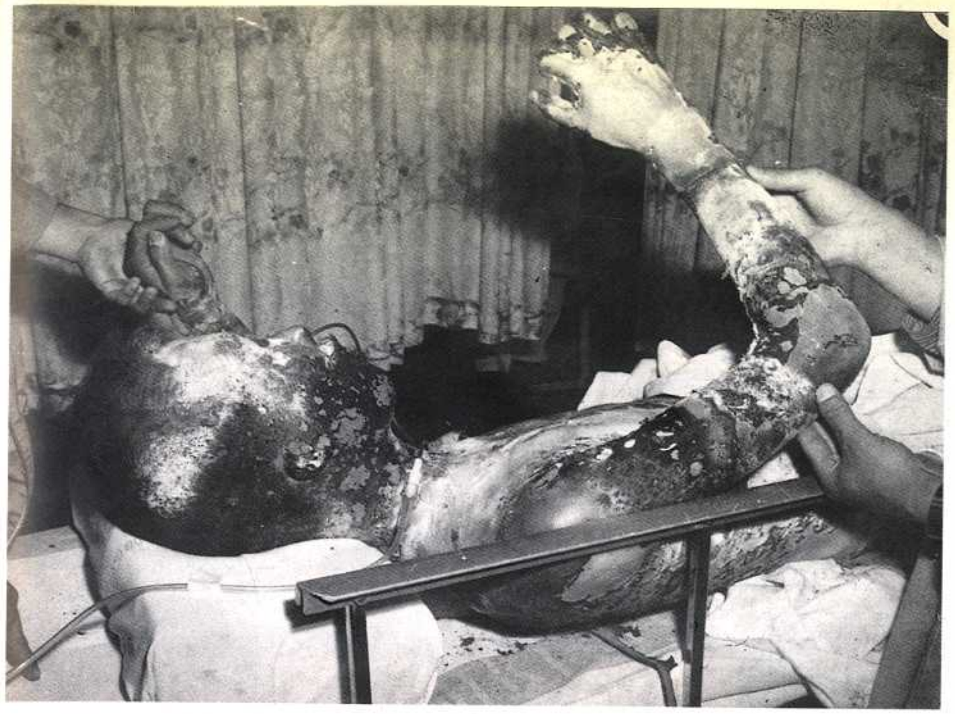
나는 싸울 것이다
살아서 나가서 피투성이로
빼앗긴 내 조국의 깃발과 자유와 위대함을 되찾을 때까지
토지가 농민의 것이 되고
공장이 노동자의 것이 되고
권력이 민중의 것이 될 때까지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빈(貧)한 자는 부(富)한 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부한 자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사회의 현실입니까? 빈부의 법칙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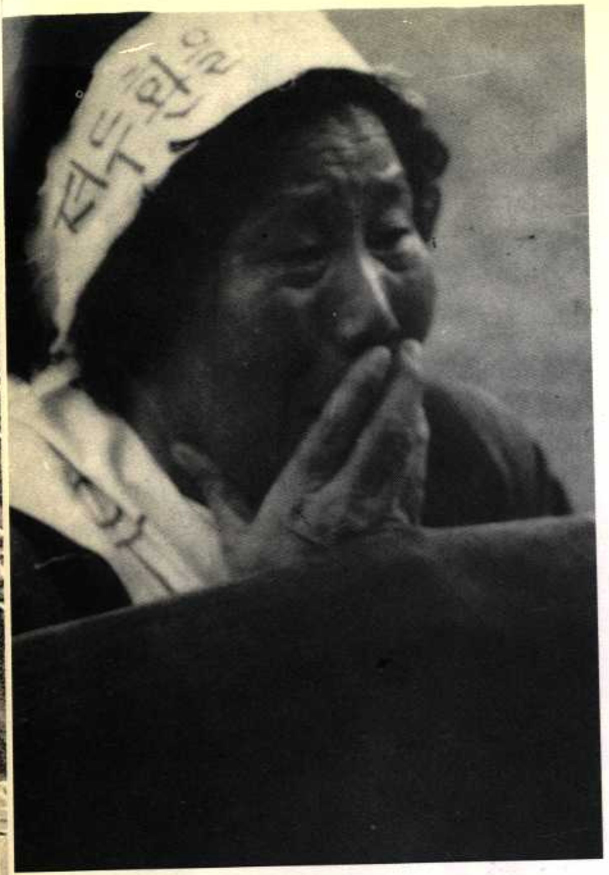
6월
민주를 향한 젊은이의 외침이
하늘을 가르고, 땅을 흔들던 날
그 외침은 우리의 가슴을 열고
독재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펑!
날아온 직격 최루탄의 폭발소리는
젊은이의 뼈를 바수고
혈관을 끊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게 불을 붙여 다오
조각나고 야위었을지라도
마른 장작이 더 잘 타는 것
내 배를 탄 백성이 원한다면
자! 불을 붙여 다오

우리는 네 얼굴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네 피투성이 시체도 보지 못했다
너는 죽어서도 어디로 끌려가서 불타 버렸다
황사바람 속에서
모든 산은 보이지 않고
몇 자루의 뼈로 네 어머니 앞에
네 목쉰 형제 앞에 돌아왔다
우리들의 검정가슴 앞에 그렇게 돌아왔다



어머니
당신 가슴에 못을 박으며
우리들은 싸우러 갑니다
당신에게 못 다한
효도
뒤로 남긴 채
당신을 편안하게 모실 그날을
위해
우리들은 일어서 갑니다
어머니
싸움이 없으면 우리들 참 행복도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들은 더 이상 눈물과 한숨 속에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어머니

조국의 성전에
제 피붙이를 바치고
제 아들 살과 뼈를 얼굴에 묻고
통곡하는 조선의 어머니는
싸운다

살육이 피범벅되는 거리에서
정의가 무릎꿇는 재판장에서
야수의 칼날이 번득이는 감옥창살에서라도
조선의 어머니는
싸운다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 갔다
많은 사람이 실로 많은 사람이 죽어 갔다

지금도 죽어 가고 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의 죽음이 헛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 그때 흘린 피 한 방울은
어머니인 대지에 스며들어 언젠가
어느 날엔가는
자유의 나무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해방된 미래의 자식들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가 흘린,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다

# 살아서 만나리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화764-2835,전송743-2835)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전화742-3180,전송742-3181)

발간사

# 간행에 즈음하여…

이 창 복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상임의장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지난 독재 정권하에서의 암울한 시대에 민주화와 통일,그리고 민중생존권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민족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민족민주열사 그리고 희생자 "300여위' 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신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열심히 활동한답시고 했지만 그동안 민주화를 괄목할 정도로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통일은 진전이 없고 민중의 생존권도 상대적으로 위협받고 있어서 여전히 진한 아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쟁 대오를 정리하고 정신을 새롭게하며 투쟁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가신 열사분들과 희생자들의 자료를 집대성하여 발간하게 된 것은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큰 의미가 있다 할것입니다.

자료를 편집함에 있어서 특히 편집 실무자들의 고충이 많았습니다. 우선 모든분들의 자료를 빠짐없이 수록하는 일이라든가 출간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는 일, 그리고 편집 내용에 있어서 그 어떤 편향없이 공정하게 정리하는 일 등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음에도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여주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있다면 이는 전혀 고의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며 더불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열사님들과 희생자님들의 생애가 과거의 일로 보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과거였습니다.

가신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오늘에 되살리는, 그래서 우리 운동의 활성화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왜곡된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고 가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열사님들과 함께 투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자주·민주·통일의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 살아서 만나리라

## 차례


발간사 • 11

격려사 • 14

유가협공동 의장단 인사말 • 15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소개 • 19

- 노동편 • 19
- 학생편 • 193
- 재야편 • 373
  - 농민 • 375
  - 도시빈민 • 380
  - 인권 • 401
  - 일반시민 • 409
  - 재야 • 430
  - 청년 • 446
- 장기수편 • 481

부록 • 503

- 열사들의 주장 • 505
-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 516
- 범국민 추모(기념) 사업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 519
- 연대회의가 걸어온 길 • 523
- 연대회의 주소록 • 527
- 유가협 주소록 • 534

열사가 남긴글 모음 • 538

묘소 안내도 • 551

찾아보기 • 554

편집후기 • 556

격려사

# 의로운 삶을 살다간 사람들

박 정 기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상임의장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는 1986년 8월 12일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라 일컫는 한(恨)덩어리로 된, 민족의 아픔을 한몸에 안고 삶을 살아가는 응집력이 강한 인권단체이다. 유가족이란 자생체의 뜻을 정리한다면 오랜 민족역사를 거슬러가야 하며 그 방대한 서술을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유가협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근대사(1970)를 앞뒤로 한 시기에 발생한 죽음과 죽임의 자료집을 발간한 일이 있다. 특히 5.16쿠데타이후 12.12, 5.17 등 숭고한 국민에게 총검을 겨누고 생명을 앗아가고 인권을 말살하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재벌과 합작하여 정권을 찬탈하고 국민의 모든 것을 수탈하기에 이르렀다. 그 여파는 두말할 것 없이 민중에게 다가왔고 역사를 피로 물들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

생명은 지구와도 바꿀수 없다고 한다. 이 자료집에 실린 죽음의 생명들은 사적인 의식은 전연 찾을 수 없는 것이 공통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주적이고 자유평화를 갈망하면서 민족분단을 통일시켜 본래의 것으로 만들자는 뜻외는 전연 딴 뜻은 찾을 수 없다. 책(자료집)이 낡아 못쓰게 되었으면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발간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 5.6공 이후 소위 문민정부로 자처하는 정권하에서도 수많은 흉측한 죽임과 죽음들이 발생되고 많아졌다. 특히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도 모르는 의문의(사) 죽음을 당한 사례들이 많이 실려 한층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는 살해한 당사자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또 그 누군가가 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기대라고 봐 금번 유가협에서 죽임과 죽음의 자료집을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추가발간이 없기를 바라면서 발간한다.

이 자료집을 내는데는 방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더욱이 올여름처럼 짜증스러운 나날을 이 일에 매달려 헌신해주신 실무팀(숭실대 박래전기념사업회)에게 그리고 지역에서 자료를 발굴해 취합해주신 분들과 더욱이 출간을 위해 기꺼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개마서원에 수록된 300여명의 유가족을 대신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유가협의 단순한 자료집으로 남을 것이 아니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음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은 묻어둘 수 없는 것이기에…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공동의장단 인사말

# 고인들이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루기 위해

허 영 춘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공동의장

70년대부터 97년 8월 시점까지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노력하다 목숨을 바친 우리 가족들의 자료집이 나오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자료집을 보면서 우선 죽은 가족들의 손을 잡는 것처럼 소중하게 두 손으로 어루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게 만들었거나 죽인자들에 대한 분노가 불처럼 타오름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죽음은 각각이 이 나라 최현대사의 한 면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이뤄진 것도 많지만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기도 합니다. 그 길을 남은 가족들이 가려 합니다.그런데 한 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인들에 대한 자료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고인들이 이루고자 한 것을 세상에 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의 명예회복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당시의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몇 년에 걸쳐 변변한 자료집조차 없던 차에 이렇게 추모단체연대회의 일꾼들이 노력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게되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 민주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배 은 심

유가협 공동의장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민주제단에 바친지 엊그제 같은데 십년이란 세월이 되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일제치하 삼십육년이란 기나긴 세월속에서 우리 선조님들께서는 독립을 위해, 나라를 찾고자 수많은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간악한 일본놈들에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랑찬 8.15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선조님들의 그 빛난 얻은 후세인 오늘날에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선조님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이 한반도가 독재 몇몇 놈에 의해서 혼탁할대로 혼탁해졌습니다. 나라꼴을 어찌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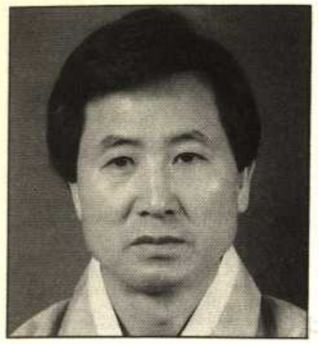
10년전 87년, 우리 국민은 손에 손을 잡고 과감히 일어서고, 청년학생은 젊음을 무기삼아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면서 독재에 항거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차디찬 감옥에서 옥고를 치러야했고 누가 죽인줄도 모르는 의문의 주검이 있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에 신나를 뿌려 죽어간 혈육이 있고 우리 유가족협의회는 싸움대열 맨 앞에서 무서운 것이 없이 독재와 맞서 싸우며 살아온지 어언 십년,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우리들의 싸움은 십년전이나 십년후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문민정부라 자칭하는 영삼이 정권은 애국자의 탈을 쓴 매국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죽어간 아들, 딸들과, 남편, 동생들을 모아 자료집을 내려고 합니다. 민주화는 되었다고들 하는데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한마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 정권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엄청난 부패와 부조리의 절벽앞에서 우리 유가족들은 멀어져가는 민주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가족의 죽음이 제대로 평가되어지고 알려지기를 바라며 자료집을 만듭니다.

나는 여기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서 가열차게 싸우신 모든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외람되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97년 12월 대선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독재의 잔재들을 몰아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민주 통일도 앞당기고 우리들의 희망이요 자랑인 청년학생들도 더 이상 민주제단의 희생양이 아닌 정말로 이 나라의 대들보가 되는 그날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무더운 날씨에 유가협자료집을 만드는데 수고해 주신 연대회의 회원님과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디딤돌 역할을 해주신 유가족후원회 회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공동의장단 인사말



# 어느 누가 자식이 죽어 열사가 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강 민 조

유가협 공동의장

자식들에 손에 의하여 묻힘을 당해야 할 우리가 자식을 먼저 묻고 속절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한 만큼 자식들이 못다 이룬 그 꿈을 실현시키고 자식들의 정신과 뜻을 이 땅에 뿌리 깊이 심어 탄탄한 민족으로 정의가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 다시는 반역자들이 국민을 지배하고 반역자들과 피묻은 손을 잡고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청년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 온갖 중상 모략으로 청년 학생들의 순수한 국가관, 민족관을 완전 말살시키려고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문민 기만 정권, 자기의 죄와(김영삼) 자식의 죄(김현철)를 뉘우치기는커녕 정의와 진리 밖에 모르는 청년 학생들의 입을 봉해버리고 족쇄를 채워 버리는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정권. 하느님도 분노하여 벼락으로 심판 내버린 정권, 얼굴에 쇠가죽을 쓰고 다녀야 할 정권, 부정 부패와 거짓으로 대중을 이끌어 가는 정권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될 때까지 자식들의 뜻과 정신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나는 오늘의 정의 때문에 내일의 죽음을 맞는다해도 오늘은 정의와 진리로 살아가고 오늘 비겁함과 비굴함은 내일에 큰 죄인이란걸 명심하고 살아갈 것이다. 1991년 4월26일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사랑하는 의아들 경대를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 빼앗기고 경대가 우리곁을 떠난 지 2달하고 15일 경대의 무덤에 흙도 마르기전에 악독한 노태우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법정소란죄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끌려갔고, 난 또다시 그들의 만행에 천갈래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잔인무도한 노태우는 쇠파이프로 경대를 때려 죽게한 전경들을 내방 바로 앞에 수용하여 내가 보고 그들이 나를 보게 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만들어냈다. 어째 인간의 허물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서슴치 않고 하는 이리같은 독재정권의 만행을 용서해야 할 것인가. 나는 만기출소하여 보고싶은 아들이 있는곳 망월동을 찾아 말없이 누워있는 우리 경대에게 약속을 했다. 다시는 제2의 경대가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내 온몸으로 싸우겠다고, 어느 누가 자식이 죽어 열사가 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검은 양심으로부터 이 사회를 지켜 내는데 열심히 살겠습니다.

벗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직은 비록 우리가 소수이고
힘 또한 저들보다 적은 듯하여도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옳지 않은 자들과의 싸움이므로
어쩌면 이미 이기고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로운 우리 몇몇만 손을 잡고 있다 해도
결국은 많은 이들이 함께 이 길을 나섭니다
내 그대들과 만나면
오월 나뭇잎처럼 마음 기쁘게 사래치고
그대들 아름다운 발걸음과 함께 가노라면
정겨운 물소리에 발목을 담근 듯한 것은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란 솟음치는 믿음 때문입니다
벗들이여 그때까지 마음 잃지 않는
굳은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날이 정녕 가벼이 오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오고야 말 그날까지
굳게 잡은 손 놓지 않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벗들이여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기고 있는 싸움입니다



# 살아서 만나리라

# 노동편

# 전 태 일 (당시 22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1948년 8월 26일** 경북 대구시 남산동 출생
**1963년** 대구 청옥 고등공민학교 입학 후 가정 사정으로 그만둠
**1964년** 단신으로 상경한 어머니를 찾아 막내 동생을 업고 뒤따라 상경
**1965년** 가을 평화시장 내 삼일사에 견습공으로 취직한 이후 한미사 재단보조 재단사로 일함
**1969년 6월** 평화시장 내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 조직
**1970년 9월** 바보회를 투쟁단체인 '삼동친목회'로 새롭게 조직하고 회장에 선출됨
**1970년 10월 8일** 삼동회 대표들이 (주)평화시장 사무실에 찾아가 다락방 철폐, 노조결성지원 등 8개항의 요구를 제출함
**1970년 10월 24일** 근로조건개선 시위를 기도했으나 실패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30분경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분신을 결행, 밤 10시경 성모병원에서 불꽃으로 산화

### ◎ 동지의 삶과 죽음

1970년 11월13일 평화시장 앞길에서 한 노동자가 죽어갔다.

스스로 자기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당긴 스물 두살의 젊은이. 불타는 몸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며 쓰러져서까지 절규하던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그는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나갔지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이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의 이름으로 영원히 되살아오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앞길을 밝혔던 전태일 동지는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봉제공장 노동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 서울로 대구로 가족을 이끌고 이사를 다녔지만 가난은 언제나 운명처럼 따라다녔다. 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채소행상이나 팥죽, 비빔밥 장사를 하던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동지는 국민학교를 그만두고 껌, 신문팔이, 구두닦이, 리어카 뒤밀이, 꽁초줍기, 비오면 우산장사, 여름에는 하드 장사 등등 어렸을 때부터 온갖 일을 다하며 번돈으로 어머니와 세동생을 먹여 살렸다.

이렇듯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동지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고 부자의 생명처럼 약자의 생명도 고귀함을 몸으로 깨우치며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였다. 동지는 15살 때 대구 청옥고등공민학교에서 스스로 얘기하듯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보내며 배움과 우정의 기쁨을 누리지만 1년이 채 못되어 꿈같은 학교생활을 마감하고 16살때부터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시다로 노동자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하루 열네시간 노동에 커피 한 잔 값인 일당 50원. 함께 일하는 열두어살 소녀들은 누렇게 뜬 얼굴에 기관지염, 안질, 빈혈, 신경통이나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 그들은 종일토록 햇볕 한번 못보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다니면서 잔업, 철야, 특근에 까지 시달리며 먼지 구덩이 다락방 작업장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쏟아지는 졸음을 막으려 타이밍약을 먹으며 바늘 끝으로 제살을 찍어대고 있었다.

청계천 여공들의 삶은 이렇듯 손발이 마비되도록 일해도 생계마저 위협받는 비참한 모습이었다. 이를 본 전태일 동지는 착취와 혹사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었고 나아가 이를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 여공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동지는 매일 버스값 30원으로 1원짜리 풀빵 30개를 사서 시다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평화시장에서 도봉동까지 걸어다녔고 가혹한 노동조건에 병이 깊어진 여공들이 통증을 호소하면 주머니를 다 털어 약을 사주고 그럴 형편도 안되면 일을 대신하고 달랬지만 그 어느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고 이런 사정에 몹시 괴로와했다. 일이 손에 익자 전태일 동지는 미싱보조, 재단 보조를 거쳐 재단사가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날 한 미싱사 처녀가 재봉틀 위에 새빨간 피덩이를 토해냈다. 급히 돈을 걷어 병원에 데려가보니 폐병 3기로 인한 각혈이었고 그 여공은 해고되고 말았다. 몹시 충격을 받은 동지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비정하고 잔인한 노동조건을 내손으로 바꾸어 보자는 굳은 결의로 1969년 6월부터 재단사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바보회'(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당하고 살지만 우리도 깨우쳐서 바보로 남지 말자는 뜻을 담음)모임을 조직하고 밤이 새도록 '근로기준법' 조문을 뒤지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노동운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청계천 일대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노동청에 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경멸과 비웃음 뿐이었다. 1970년 4월부터 낮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있던 교회의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근기법을 공부하며 노동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번민하던 동지는 8월9일 마침내 하나의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는 오랫만에 일기를 썼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와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 . . . . . . . . . . .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에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 때에 한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오니, 하느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온 동지는 동료들과의 모임인 '바보회'를 본격적인 투쟁을 담아낼 '삼동 친목회'로 바꾸고 청원과 진정대신 더 적극적인 투쟁방법을 계획했다. 직접 청계천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조건개선 진정서'를 만들어 삼동회원과 노동자 9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노동청에 제출하고 이것이 경향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결국 근로조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박정권과 노동청은 삼동친목회원의 주위에 경찰을 배치하며 회유, 협박에만 급급하였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2만여 청계노동자의 단결된 투쟁뿐이었다. 동지는 삼동친목회를 소집하여 10월 20일과 24일 시위를 계획하지만 실패하자 마침내 11월 13일 청계천 노동자들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화형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방을 정리하고 아끼던 검정바바리를 깨끗이 차려입고 근로기준법 책을 품속에 넣은 채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라면)를 한 동지는 초겨울의 쌀쌀하고, 흐리던 11월13일 오후 1시30분경 시장 골목에서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당겼다.

"근로기준법 지켜라!" 어린 여공들의 비명 속에 쓰러져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나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외치던 동지는 불에 타고 짓물러진 숯덩이가 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 걱정마라. 내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너의 뜻을 이룰테니...."

"어머니... 배가 고파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전태일 동지는 떠나갔다.



그러나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강요하던 군부독재정권의 칼바람 속에서도 죽음으로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불꽃을 일으킨 동지는 70년대의 처절한 투쟁을 거쳐 이제 전국을 사르는 들불이 되어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수많은 전태일로 되살아오며 찬란한 승리를 앞당기고 있다.

## ◎ 유고글

【유서】

내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 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 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아주 영원히 버릴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어.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 주게. 원섭이와 재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좌석을 마련했으면 내말을 들어 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못다 굴린 덩이를,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굴리는데 도울수만 있다면, 이룰수만 있다면

* 반지: 金力을 뜻함. *

〈70년 여름에 쓴 소설 초안 속의 유서〉

【동지의 글】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지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적이 인간이 가져야할 인간적 문제이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써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나는 절대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인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인간의 가치를, 희망과 윤리를, 아니면

그대 금전대의 부피를

〈전태일 동지의 수기 中〉

【일기1】

어지럽게 들려오는 쇠금속 소리. 짜증섞인 미싱사들의 언성. 무엇이 현재의 실재(實在)인지를 분간 못하면서, 그 속에서 나도 부지런히 그들과 같이 해나갔다.

무의미하게, 내가 아는 방법 그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는 무아지경이다.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순서대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행동만이 질서정연하게 자동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의 나는 일의 방관자나 다름없다. 내 육신이 일을 하고,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의 육감과 이 소란스런 분위기가 몇 인치, 몇 푼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 긋고 나라시가 되고, 다 되면 또 재단기계를 잡고 그은 금대로 자르는 것이다. 누가 잘랐을까? 이렇게 생각이 갈 때에는 역시 내가 잘랐다.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렴풋이 생각이 확실해질 때는 퇴근시간이 다 될 때이다.

세면을 하고 외출복으로 바꿔입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오면 밥상이 기다리고 있다. 밥을 먹고 몇마디 지껄이다가 드러누우면 그걸로 하루가 끝나는 거다.

1967년 3월

【일기2】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 김 진 수 (당시 22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1949년 7월 6일 전북 임실군 장사면 출생
1967년 12월 안양고 2년 중퇴
1968년 8월 15일 (주) 한영섬유 입사
1970년 12월 31일공장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폐업한다는 말에 자진사퇴
1971년 1월 4일 한영섬유에 재입사
1971년 3월 18일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구사대에게 피습당해 사경을 헤맴
1971년 5월 17일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주)한영섬유는 70년 12월에 노동조합을 결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으나 회사측은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하여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하자 회사는 최홍인, 홍진기 등을 돈으로 매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3월 18일 오후 3시경 일과시간 중 만취상태로 김 동지와 동료를 폭행했으며, 노조일을 적극적으로하던 김 동지를 불러 드라이버로 머리를 2.5㎝가량 찌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진수 동지는 사망 후에도 회사측은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함으로써 한달이 지나도록 장례를 못치르게 했다. 사고 후 유가족은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단체협약 체결과 보장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노동자의 한 생명의 가치를 헐값으로 취급했다.

## ◎ 동지를 생각하며

【결의문】

1) 우리는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이 부조리한 산업사회 속에서 오늘도 희생되고 있음을 통감하고,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이 부정한 사회풍조를 깨뜨리고, 과감하게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산업평화에 앞장 설 것을 굳게 다짐한다.

2) 우리는 기업인들이 기업윤리에 입각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중히 생각하고, 솔선수범하여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평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3) 행정부와 입법부는 기업주들의 횡포로 국가경제발전의 주체인 근로자들의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노동법을 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 추모글

【성명서】

**한 노동자의 죽음이 말한다.**

사망한 지 30일이 되도록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는 내막을 밝혀 봅시다.

사망한 김진수는 가난한 가정의 독자로서 한영섬유에서 일하다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회사측의 전위대에 의해 숨진 것이다. 3월18일 사건이 발생하여 5월16일 사망했으나 유가족 측은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단체협약 체결 그리고 3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50만원으로 보상에 맞서고 있어 한 생명의 가치가 헐값인 것을 알고, 사회단체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며, 누가 죽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측은 동료들끼리 싸웠다고 주장하며, 도의적인 책임으로 50만원의 위자료를 준다는 것이며, 노동조합 분회장 및 한영섬유 동료들과 가해자는 공장장의 지령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활동중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근로자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러한 인권의 유린에 대해 우리는 눈 감고 있어야 합니까?

1971년 6월 15일 영등포 도시산업선교연합

# 김 경 숙 (당시 21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1958년 6월 5일** 전라도 광산군 비아면에서 출생
**1971년** 초등학교 6학년때 공장에서 노동자로 출발
**1976년 8월 30일** YH무역(주) 입사
**1978년 3월** YH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
**1978년 7월** YH 노동조합 소그룹 '차돌이' 그룹장으로 활약
**1979년 4월 13일** YH 노조 폐업철회 공장점거 농성. 5일동안 (폐업1차 철회함) 김 동지는 후생부 책임당담으로 활약함
**1979년 8월 9일** 신민당 당사 점거농성
**1979년 8월 11일** 새벽 2시 2천여명의 경찰이 '101호작전'에 의해 신민당사에 난입,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김경숙동지 동맥끊고 투신,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김경숙 동지가 근무하던 YH무역은 1975년 5월 노동조합을 (지부장 최순영 현 부천시의원)결성하였다. YH무역은 1백만원의 자본금으로 불과 2년만에 노동자 4000여명, 1년 순이익 13억원이라는 한국최대의 가발업체로 성장하였다. YH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수십억의 돈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폐업을 자행하였다. YH 노조의 폐업에 맞선 120일간의 투쟁과 신민당사 농성투쟁은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악덕자본가와 이를 비호하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투쟁이었다. 그는 신민당사 농성 3일째 밤,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 투신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생존권을 짓밟는 악덕기업주를 처벌하기는커녕 정당한 폐업철회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탄압, 김경숙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군사독재정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18년에 걸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 ◎ 유고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어느 누구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다. 집안환경 관계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의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다가 나이 8세가 되던해 아버지는 갑작스런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

우리집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당장 날품팔이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야만 하셨다. 없는 가정에서 어렵게 어머니의 수고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하기 직전 겨울방학 때부터 공장에 취직을 하였을 때 돈에 구애를 받던 나 자신은 이 가난한 우리 가정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공부를 동생에게 가르쳐서 동생만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리하여 고향을 등지고 타향에 발을 붙이게 된 것이다. 맨처음에는 커다란 포부로 꿈을 안고 서울로 왔으나 와서 보니 별것이 아니었다. 고향에서 생각했던 꿈은 이룩할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내 힘닿는 데까지 힘써 살아가리라고 다짐했다. 하청공장에 취직을 하여 말만 듣던 철야작업을 밤낮 하면서 약 2개월은 나의 코를 건들지도 못했다.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코피가 나는 것이다. 나의 몸은 더욱 약해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어떤 회사에서는 봉급을 약 3개월치를 받지 못했다. 헐벗고 굶주리며 풀빵 5원짜리 30원어치로 추위에 허덕이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이라도 해버리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으나 고향이 그 길을 막았다. 하청공장에서는 작업관계로 일요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는 경영부실로 인해 여러차례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



젊고 싱싱한 나이에 우리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장안에서 여러형태의 억압을 받으며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혼탁한 먼지속에 윙윙대는 기계소리를 들으며 어언 8년 동안 공장생활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남은 것은 병밖에 없다.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마음은 상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리라 다짐한다.

객지에 나와있는 외로운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도록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하련다. 현실은 어려워도 주님의 자녀로서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며 태양과 같은 밝은 등불이 되리라.

## ◎ 추모글

【추모시】

**우리들의 지지 않는 꽃 김 경 숙**

1

당신의 나이 스물 하나였다.

1979년 8월 11일
잊지못할 그 밤
고향의 따뜻한 뒷산 품에
아버지를 여의던 길도 아닌 곳으로
농성장 창틀을 부여잡고 울부짖던 동료들
잘가라 배웅도 받지 못한 채
그대 마지막 떠나던 날은.

소리도 쟁쟁한 쇠파이프로
경대를 죽이고 창수를 죽이고
미경이를 몰아 붙이던 쇠파이프에
날마다 눈을 뜨면
해맑은 누이들의 절규를 짓이겨 대며 조여오는
미쳐 번뜩이는 쇠파이프와 곤봉에
투쟁의 붉은 순결 낭자하게 쏟아내고
그대 영영 어디로만 가고 있었는가

2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는 공격의 신호소리
지쳐 잠이든 청순한 처녀들
놀라 아우성치는 피의 축제 '101호 작전'
짐승의 곤봉이 내 몸에 내리 꽂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흘러 적시는 내 뜨거운 피
고막을 찢던 비명소리 아스라히 멀어지던
내 나이 스물 하나였어요.

3

어머니
날 묻지 마세요
날 태우지 마세요
한줌 재가 된 뼈마디 가루로는
난 이 땅을 떠날 수 없어요

내 살아온 삶의 전부를 바친 이 노동의 끝
우리 처음 만난 곳은 YH라네
우리들이 단결한 곳도 YH라네
그리운 동료들의 이름 한 번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묻힐 순 없어요

친구여
나를 아는, 그리고
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여
나의 슬픔을
나의 분노를 함께 이고 갈
내 가난한 이웃들이여
삼일이 아니라면 십삼년
삼십년이라도 좋아요
신성한 인간의 노동이 유린되는 곳
그곳이 나의 집입니다.
그대 노엽고 슬픈 가슴에 날 품어주오.

4

다시 피어나는 구나
드높은 조국의 팔월 하늘
그토록 가고 싶던 고향하늘도
모진 세월의 역사를 흘러 흘러

자유의 하얀 뭉게구름으로 피어나는 구나
슬픔으로 더욱 견고해진
우리들 가슴 가슴마다
피끓는 부활의 꽃을
새 세상의 아침을 향해
꽃잎 눈부시게 피어나는 (지지않는) 꽃으로
그대 다시 우리 앞에 살아오는구나.

〈김경숙 동지 13주기 추모제
묘소참배에서 낭독한 추모시〉



# 김 종 태 (당시 22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

| | |
|---|---|
| **1958년 6월 7일** | 부산 초량동에서 출생 |
| **1973년** | 서울 삼진 특수철 입사 |
| **1974년** | 소그룹 형제단 창단 |
| **1975년 8월** | 중학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 |
| **1976년 3월** | 제일 산업중학 졸업 |
| **1977년 12월** | 금마실업 감원 퇴사 |
| **1979년 5월** | 제대 후 조나단 독서회 조직 |
| **1980년 6월 9일** | 17시50분 경 이대앞에서 "노동3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광주학살 의분을 호소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분신 |

## ◎ 동지의 삶과 죽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김종태 동지는 초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공장생활을 시작했다.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공사판과 공장을 떠돌며,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77년부터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전태일 추모회를 하는 등 동일방직사건에 많은 지원세력이 되었으며,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종태 열사가 정신적 타격을 크게 입은 것은 79년 9월12일 Y.H사건 이후 "한울 야간학교"교사들이 경찰서로 연행되고, 학생들은 강제 해산될 때부터였으며, 방위병에 소집된 후에 그렇게 기다리던 민주주의가 광주학살로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80년 6월7일 열사는 "광주시민의 넋을 위로하며"라는 내용의 유서를 이해학 목사님께 전달할 것을 당부하고, 5월9일 이대앞 네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유신잔당 물러가라" "노동삼권 보장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를 외치면서.

## ◎ 동지를 생각하며

**아! 이제 형은 가고 없다.**

형은 철거민이 즐비한 천막밖에 없던 성남땅에 들어와 온갖 설움과 학대를 받았기에, 야학의 동료 노동자에 대해 너무나 애정이 깊었고, 공장운동을 소신껏 전개해 보겠다는 꿈 많은 젊은 23살의 노동자였기에 광주시민의 피에 깊이 가슴 아파했던 그는 자신의 꿈을 모두 우리에게 물려준 채 갔다. 공포와 억압이 환한 대낮에도 불같은 억압으로

닥쳐오는 시기이기에 친한 친구들마저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조촐한 주위의 눈물속에 갔다.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한 가까웠던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가슴아파했던 친구들을 남겨둔채로......

## ◎ 유고글

**【유서】**

국민 여러분.

과연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하루 삼시 세끼 끼니만 이어가면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한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백수천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며 죽어가는 데 나만, 우리 식구만 무사하면 된다는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지금 유신잔당들은 광주시민 학생들의 의거를 지역 감정으로 몰아쳐(전라도 것들)이라는 식의 민심교란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몽둥이로 진압하려다 실패하자 칼과 총으로 진압하고서, 그 책임을 순전히 불순세력의 유언비어 운운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엄철폐를 주장하면 계엄을 더 확대시키고 과도기간 단축을 요구하면 더욱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겐 자제와 대화를 호소한다니 정말 정

부에서 말하는 대화의 자세란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계엄령 확대와 시민의 감시 등을 위해서 전방의 병력들을 빼돌려 서울로 집결시키는 조치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사리사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느꼈으며, 권력이 그렇게도 잡고 싶은 것인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저력을 우습게 보고 있는 저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말로가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 작은 몸뚱이를 불 사질러서 국민 몇 사람이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몸을 던지겠습니다. 내 작은 몸뚱이를 불 사질러 광주 시민, 학생들의 의로운 넋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대가없이 이 민족을 위하여 몸을 던진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분한, 너무 거룩한 말이기에 가까이 할 수도 없지만 도저히 이 의분을 진정할 힘이 없어 몸을 던집니다.

〈'광주시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 中에서〉

【일기】

1980년 3월 10일

밤, 나에게 인상이 깊었던 밤이다. 쌀쌀해진 시샘추위의 밤에 낮의 피로가 농축된 나의 눈동자는 나의 머리 위에 빛나고 있는 하나의 별을 보았다. 빛나고 있다기보다 그것은 하나의 불덩어리였다. 작은 태양이었다.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별은 나의 마음 속에 가득한 그 무엇을 주었고 그 숱한 시인들의 노래 속에 아로새겨둔 뜻과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숱한 시민들의 느낌을 나도 맛보았다. 나는 그 별을 한 5분간 지키고 서있었다.

나는 그 별을 보고 고요히 나의 마음을 가라앉혀 나의 마음의 물 속에 투영시켜보려고 애썼으나 끝내 나의 마음은 고요히 있지 않고 마구 흔들리고 출렁이었다. 공연한 우수에 잠겨 무언가 모방하려는 애씀이 마음 속에 그 별을 멋대로 채색하고 있었다. 나는 곧 두 눈을 감아버리고 별에 대해 등을 지고 마음 속에 전쟁을 상기하였으나, 그 별은 나에게 있어 새삼스런 아주 새삼스런 감동이었다.

【성명서】

10.26사태 이후 우리 국민은 19년간의 일당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꽃피울것을 꿈꾸며 말없이 정국을 지켜보았으나, 일당 독재의 연장을 꿈꾸며 정권을 탈취하려는 유신체제 잔당들의 음모와 계략으로 국민들의 기대는 무산되었으며, 작금 소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구성 등 군사정권이 그 마각을 드러내고야 말았을 때, 모든 국민과 더불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며, 광주사태의 책임전가와 왜곡보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와 독재도 부정하며 목숨을 바쳐 항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러므로 유신체제를 존속시키려는 구체제 잔존세력들의 어떠한 책동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1. 유신잔당은 전원 퇴진하라!
1.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고, 군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1. 김대중씨를 포함한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전원 석방하라!

1980년 6월 7일

성남에서 김종태



## 박 종 만 (당시 36세)

**墓 일산 기독공원 묘지**

| | |
|---|---|
| 1948년 2월 | 부산 출생 |
| 1968년 | 서라벌 고등학교 3년 중퇴 |
| 1982년 10월 | (주)민경교통에 입사 |
| 1983년 3월 | 노조 복지부장으로 일함 |
| 1984년 11월 30일 | "내 한 목숨 희생되더라도 더 이상 기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

### ◎ 동지의 삶과 죽음

84년 11월 노조 일로 자주 승무를 못한 사무장 이태일씨를 무단결근 등의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해고시키자 이에 11월27일 노조 간부들과 대의원들이 모여 해고 음모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결의하여 29일부터 박종만, 배철호, 안울환 동지가 단식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11월30일 해고철회를 요구를 위해 전무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3인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자 이 소식을 들은 박종만 동지는 동료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에서 밖으로 뛰어나오며 "노동조합 탄압 말라., 사무장을 복직시켜라,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라."고 외치며 분신, 오후 8시30분경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다.

### ◎ 동지를 생각하며

**"내 한목숨 희생되더라도 ....."**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박종만 동지는 기숙사 숙소로 들어갔다. 배차일지 뒷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한목숨 희생되더라도 기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동료기사인 안울환 동지는 "무엇을 쓰는 거냐, 괜히 딴 생각말어"하였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때 쓴 유서는 그의 잠바 주머니에 분명히 있어야 했으나 사고 뒤 숙소에서 발견된 그의 잠바에는 동전 몇개와 면도칼만이 남아 있었다.

11시, 동료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박종만 동지는 회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배철호가 아무래도 이상한 예감이 들어 사무실 문을 열어 보았다. 그러나 안에서 잠겨있었다. 배철호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어"하며 사무실 좌측의 창문을 열기위해 사무실을 돌아가는데, "꽝"하고 문이 열리더니 불덩이가 뛰어 나왔다. 석유를 뒤집어 쓴 박종만 동지였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노동조합 탄압말라! ····아이구 뜨거워 ··· 부당하게 해고된···기사들을 ···복직시켜라!···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라, 아이구 뜨거워···"

신음을 내면서도 그는 중간중간에 요구조건을 외쳤다. 동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도 그는 요구조건을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84년 11월30일 오후 8시50분 그는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들을 남겨둔 채 36살의 젊은 생을 "내가 이렇게 떠나면 안되는데···아직도···할 일이 많은데···"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채 운명하였다. 이 땅의 수많은 운수노동자들의 대변자가 되어 '내 한목숨 희생되어 기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면 ···' 이라는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못한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서 싸워나갈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위해 그는 그렇게 우리 앞에서 떠나갔다.

◎ 추모글

【시】

### 불살라 살라라

박노해

불살라 살라라

운전생활 10년만에 깡만 남아
피로와 독기와 성깔만 앙상한
내 육신을 불살라
살라라

엿같은 세상
좆같은 새끼들
우리 운짱들 피와 땀을
점잖게 합법적으로 빨아먹었지

지옥타종처럼 울리는 시계소리에 무겁게 일어나
찬 새벽거리를 더듬어 가는 출근길
부석한 동료들과 담뱃불을 건네며
배차표를 받아들고 부웅 땡겨 달리면
총구를 떠난 탄알처럼
또 하루를 훌치며 밟아댄다.

인도로 눈깔을 번득이며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지그재그로 날아 밟아
깜짝아찔놀라 오그라드는 심장을 달래며
전경순시 피해가며 신호위반 쩔러 박기 합승행위
퇴근시간 지나 어둠이 깊어도
사납금 못 채운 초조한 가슴으로
엉덩이에 바람한번 쐴틈없이
목숨 걸고 달리다 보면
또 다시 새벽.
사납금을 헤아리고난 피같은 지폐 몇 장의
쓴 소주잔보다 쓰라린 배신이여

불살라 살라라
빼앗길 대로 빼앗겨
짓눌릴 대로 짓눌려
배신 당할 대로 배신당하여
뼛속같이 사무친 분노의 이글거림으로
사납금의 올가미를
취업카드를 자율버스를
노동악법을 모진 탄압을
저 착취와 억압의 반동세력을
내 온몸에 끌어안고
불살라 살라라

벗들아 동지들아
내 한 몸을 불살라
시커멓게 그슬은 육신으로
숯불처럼 내연(內燃)하며
우리들 가슴속의 비굴함과 나약함을 살라
새차의 유혹과 개인택시의 미끼를 살라
대가리에 가득찬 지배논리의 똥을 살라
캄캄한 암흑세상을
불꽃으로
우리 운짱들의
쌍라이트 보다 찬란한 투쟁의 불기둥으로 살아나
하얗게,
눈부시게 하얗게 살아나
미친 듯이 타오르며 춤추고 싶네

노동운동의 장엄한 불기둥으로 살아
우리를 착취하고  지배하고 억누르는
모든 반동세력을 불사르고
모락모락 연기 오르는 평등한 새땅,
노동자가 주인된 삼민(三民)의 새아침에
햇살 눈부신 활짝 트인 도로 위를
민중의 발이 되어 달리고 싶네
무리벗님 자매형제 기쁨으로 모시고
평화로운 통일조국의 화창한 산하를
서울에서 평양까지 산들바람에 휘파람불며
거침없이 느긋하게 달리고 싶네

불살라 살라라
해방의 그날까지
내 한 몸을 타 들어가는 도화선으로
폭풍처럼 파도처럼
솟구치는 투쟁의 불기둥으로
폭발치는 활화산으로 타오르며
모든 억압과 착취를 불살라
저 악랄한 삼반(三反)세력을 살라
불살라
살라라!



## 홍 기 일 (당시 25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

| | |
|---|---|
| 1960년 | 전남 화순에서 출생 |
| | 전남 중학교 중퇴 |
| 1984년 2월 | 사우디에 미장공으로 취업 |
| 1985년 2월 | 귀국하여 건설사업장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 |
| 1985년 8월 15일 오후 1시 |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8.15를 맞이하는 뜨거움의 무등산이여!'라는 전단을 뿌리고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분신 |

### ◎ 동지의 삶과 죽음

홍기일 동지가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인 다음 불길에 휩싸인 채 동구청까지 구호를 외치며 돌진하다 '8.15를 맞이하는 뜨거움의 무등산이여!'라는 유인물과 부모님과 형에게 보내는 유서를 뿌리면서 "광주시민이여! 침묵에서 깨어나라!", "학원안정법 반대투쟁에 결사적으로 나서자" "민주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뭉칩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 자살을 기도, 일주일만인 22일 새벽 12시30분 임종을 지켜보는 아버지에게 "절대 비굴해 지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경찰)과 타협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산화하였다.

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 시 시민군으로 참여도중 총상을 입기도 하였던 동지는 그후 건축노동자로 일해오면서 5.18의 의미를 되새기며, 당시 살아남은 부끄러움을 승화시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자기의 할 일을 모색하여 열심히 살아왔다. 또한 부모님께 남긴 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품이 착하고, 효성이 지극하였고, 분신을 기도하기 얼마전인 8월1일에는 건축일을 해 벌어온 62만원을 부모님께 전해드리면서 "나의 마지막 효도가 될 것 같다"고 하였다 한다. 그리고 분신 전날인 14일 저녁,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있거라.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일어나 보려고 애쓰던 동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조금도 초조한 기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연한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동지는 그 위독한 상태에서도 7일간이나 모진 목숨을 강인하게 버텨왔으나 동지의 어머니에 의하면 의사들은 21일 오후 4시경 운명하리라 예상했다 한다. 그러나 이날 오후, 의사들은 동지에게 알 수 없는 주사를 놓고, 산소호흡을 중단한 채 죽음만을 기다려온 동지에게 다시 강제로 산소호흡을 시켰는데 이는 동지가 낮에 운명할 경우 시신을 빼돌리기가 어렵고, 사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이 동지의 생명을 몇시간 연장시켜 운명시간마저 새벽으로 지연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는 22일 새벽 0시30분경,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는 동지의 산소호흡기를 의사가 제거해 버렸으며, 이때 동지의 전신이 경련을 일으켰으며, 팔다리가 움직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동지가 마침내 운명하자 정·사복 형사와 전경 1000여명을 동원,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강제 연행하고 "형을 따라 죽겠다" "열사를 두 번 죽일 수 없다"는 동생과 가족들의 절규속에 시신을 탈취, 미리 준비한 관에 입관하여 영구차 승차를 거부하는 유족들을 구타, 위협하면서 동지의 아버지를 화순군 도안면 백지리 야산의 매장지로 강제 동행시켜 아버지의 입회하에 가족장으로 관을 매장시켜 버리는 폭거를 자행했다.

◎ 유고글

【동지의 글】

"8.15를 맞이하는 뜨거움의 무등산이여!"

그토록 울부짖으며 부르짖던 민주가 자유가 뜨거움의 아픔으로 5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아픔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 현실에 무등을 보기가 부끄러운 뿐입니다.

4강의 각축장에서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한국의 핵기지화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한계를 우리 민족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현 전두환 군사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한 침략의 길을 더욱 개방함으로써 우리들의 사상과 주체성이 서서히 허물어짐으로써 이 현실의 8.15의 의미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현정권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하여 날로 가속화 되어가는 제국주의의 경제적 종속은 농촌과 도시 산업의 파괴로서 서서히 다급하게 말라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대오각성을 해야합니다. 온갖 억압의 배고픔보다 우리 스스로 참여하는(민주주의의 배고픔)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주체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습니다. 민주의 앞이 민족의 아픔이 민족 통일의 아픔이 온갖 허위와 쾌락과 무지와 몽둥이의 두려움 속에 잠들고 있습니다.(저 사랑하는 동생과 어린 자식의 노동자를 보십시오)

침묵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대담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민주주의 만세! 민족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무등을 사랑하는 홍기일

〈분신 당시 뿌린 유인물〉

【유서】

존경하고 사랑스런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식은 무어라고 용서를 빌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절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무서운 가정의 현실에 자식의 도리를 못하고 가버린 이 죄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아버님, 아머님께서는 알고 계실겁니다.

현재 처해 있는 우리들의 무서운 현실 말입니다.

아버님.

누군가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빈부의 격차를 떠나 산다는 의미의 지혜가 이처럼 허무하게 느껴지는 현실에 발 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선 성냥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의미할 것도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 보수주의 형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님은 알고 계실겁니다.

부디 아버님의 용서를 빌 뿐입니다.

불쌍한 어머니 꼭꼭 달래시며 달래시며.

여생을 살아 가십시오.



# 박 영 진 (당시 26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 |
|---|---|
| 1960년 | 충남 부여 출생 |
| 1976년 | 배문중학교 중퇴후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으로 어렵게 생활 |
| 1984년 1월 | (주) 동도전자에 입사 |
| 1984년 7월 | (주) 동일제강에 입사 |
| 1985년 9월 18일 | (주)신흥정밀에 입사 |
| 1986년 3월 17일 | 임금투쟁중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살인적인 부당노동행위 철회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외치며 분신 |

◎ 동지의 삶과 죽음

동일제강 민주노조 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해낸 그는 신흥정밀에 입사하여 부당노동 행위 및 임금착취에 대한 항의중 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다가 공권력 투입에 밀려 경찰과 회사측의 폭압에 맞서 "근로기준법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며 분신. 병원에서도 "전태일 선배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하겠다. 1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끝내 운명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시신을 탈취하여 유가족을 협박, 화장을 강행하여 인근 야산에 유골을 뿌렸으나 다행히 그 직후 동료들이 이를 수거하여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인간의 창조적인 행위인 노동에 대한 자부심, 노동자로서 자신에 찬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그 정당한 댓가가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머슴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어느 누구도 노동자를 대신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24세 9월)

"1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광고를 자랑스럽게 떠벌여 붙여놓은 저 광고! 도대체 기업주놈들의 뱃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처럼 많은 폭리를 당해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단 말인가?" (24세 12월)

"나 혼자만의 이기심을 위해 안일하게 행동한다면 돈많이 가진 악덕기업주와 다를 게 뭐 있겠나?····공장의 동료들이 나의 동생이며 친구이고 형님이며 이들의 부모가 나의 부모가 아니겠는가?····애정을 가져야 한다. 비록 이 한 생명이 흙이 될 때까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지 못할지언정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영진이는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25세 1월)

◎ 유고글

【동지의 유언】

영등포 노동자들과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이소선 여사만, 그것도 영진의 어머니라고 자칭하고 천신만고 끝에 꺼져가는 박동지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 있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없냐?"

영진이 고통스럽게 손을 뻗어올리며 사력을 다해 외쳤다고 한다.

"삼반세력(반민족, 반민주, 반민중을 뜻하며 당시 정권을 지칭하는 말)타도하자! 투쟁하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 정의가 넘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평화가 있어야 한다. 신흥정밀 동지들아 끝까지 투쟁하자. 미안하다.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먼저 가서···헉헉헉···산

소 호흡 좀 시켜줘요. 답답해요. 손 좀 만져줘요. 손 좀·····.

【편지】

'사랑하는 명숙에게'

남쪽에서 봄바람이 우리의 살갗을 노크할 때, 우리의 삶은 충족감을 느끼고 풍만함을 느껴야 한다.

숙아, 이젠 숙이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고 싶다.

한국의 예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니?

한국의 예수는 1948년 8월 경북에서 태어났다.

국민학교 2년을 중퇴하고 신문 팔이, 구두닦이를 하며 삶을 이어오다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길거리의 거렁뱅이로 살다가, 미싱사로 취직해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어 가는 동료들을 보고 또 동생같이 나이 어린 동료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겠다던 한국의 예수는 22세 되던 해인 70년 11월 13일 자기 몸에 석유를 뿌리고 죽어갔다.

공장(노동현장) 동료들의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끌고 가면서 나 하나의 희생으로 고통받는 이는 없어져야 하며 더욱 더 노동자들을 인간답게 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노동법' 책 한 권을 부둥켜안은 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하라! 노동자들을 혹사시키지 마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짧은 생애를 마쳤으나 누구나 맞는 죽음을 한국의 예수라는 탄생으로 승화시켜 우리들 가슴에 아직도 숨쉬며 살아 있다.

물론 선배님(한국의 예수 전태일)의 삶의 바탕은 '인간애'였고, 그 '인간애'는 '누구나 다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다 같은 인간'중에서 '억눌리고 핍박받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데서 부터 그 사랑의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 · · · · · · · · · ·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배운 것 없는 무식한 놈,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 그래서 인간대접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로보트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힘없고 보잘 것 없는 한 평생을 굽신거리며 살아야 하는 노동자 계급임을. 숙아! 옛날엔 양반, 상놈, 백정 등으로 사람마다 등급이 아닌 계급이 정해져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돈을 가진 놈, 정치권력을 가진 놈들은 착취할 수 있는 계급이라고 하여 착취계급, 또는 자본가계급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이와 상반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그저 몸뚱이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공장노동자, 논·밭을 갈아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소작 농민 기타 등등을 피착취계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던 시기는 노예시대나 봉건주의 시대나 가능했던 일이지. 우린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착취계급이 착취계급으로 간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가끔 신문에 고학을 해서 대학에 합격한 사람, 판·검사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 흔한 일이니? 남한 인구가 4천만인데 4천만의 10도 아니라,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든 일에 우리의 운명을 내던져야겠니? 나도 너도 우리가 그 힘든 사회구조에 말려들기엔 너무도 벅차다. 그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하면 된다는 것처럼, 그러나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또한 그것을 똑똑한 놈들(정치권력, 미국, 일본놈들, 돈 많이 가진 자본가들)은 쉽게 내주질 않는다.

회용이, 영수, 용남이를 경찰서로 데려 갔다. 왜 데려 갔을까? 회사에서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좀 알려고 했을 뿐인데, 이 회사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고 조금 노력했을 뿐인데 왜 경찰들이 수작을 부릴까? 우린 국민학교때 고마우신 경찰관 아저씨니, 민중의 지팡이니 하고 배웠는데 왜 우리 동료를 죄없이도 데려갈까? 그 이유는 그들도 돈의 노예, 착취계급의 앞잡이이기 때문이다. 일제시대때 앞잡이를 좋아한 국민이 있었을까? 일제 때의 일본 앞잡이와 경찰은 다를 게 없다.

명숙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아저씨는 너를 볼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이젠 보기 어렵게 될 것이기에 그 동안 못 다한 얘기를 죄다 하려니까 너무도 많다.

숙아! 경찰관도 나쁘다 하지, 사장도 나쁘다 하지, 정치인도 나쁘다 하지, 미국놈도, 일본놈도 나쁘다 하지. 또 회사에서 법만 어기고 있다고 하니까 언뜻 생각하면 회사에서 말하는 불순분자같고 빨갱이가 아닐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허나 삐라라고 이야기되는 우리들의 소식지가 틀린 말 한 적이 있니? 우리 회사에서 매일같이 행해오던 부당해고(2~3일만 결근하면 짜르는 것), 너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해당하는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야간 근무금지, 18세미만 근로자 기본 근로가 7시간인데 9시간 시키고 2시간 떼어먹고, 석희형이, 성현이가, 광찬이가 일을 하다가 코를 헐고, 봉호가 약물에 데어 우리의 몸은 병들어가도 회사는 대책이 없다.

〈분신 사흘전에 신흥정밀 여성 노동자에게 보낸 편지〉



# 변 형 진 (당시 38세)

**墓 화 장**

**1948년 3월 16일** 강화도 삼산군 출생
**1961년** 강화도 삼산국민학교 졸업
**1976년** 대성연탄 취직
**1981년** 택시기사로 취직
**1985년** 삼환택시 입사
**1986년 2월 22일** 부당해고 통고, 4.30일까지 출근투쟁
**1986년 4월 30일** 오후 2시 30분경 회사앞에서 분신,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1986일 5월 1일**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세차비를 부담시키자 변형진동지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회사측은 배차정지를 시켜 3일간 일을 못하게 하고 월급에서 3일치를 공제시키자 이에 반발하여 회사앞에서 알몸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4월21일에는 배차를 받아 회사에서 나오다가 사장차와 마주치게 되었으나 뒤로 비키지 않고 그대로 몰고 나왔다. 이에 격노한 사장의 지시로 동지는 해고를 당하게 되고, 이에 반발, 출근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4월30일 신나를 몸에 끼얹고 분신하여, 회사측은 아무도 모르게 변형진 동지를 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기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과 동지들에게 동지가 이미 죽었다며 면회조차 거부하며 합의하기를 공갈협박하였다. 그러나 동지는 5월1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 길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떳떳하게 잘 사는 세상이 와야 할텐데"라는 말을 남기고 38세의 나이로 운명하였다.

## ◎ 동지를 생각하며

### 누가 변형진 동지를 죽였는가?

세차비까지 기사들에게 부담시키며, 극에 달한 착취를 일삼고도 취업카드라는 제도를 통해 언제든지 기사들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자본가의 끊임없는 착취와 노동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자본가의 비인간적 작태에 동지는 죽음으로써 항거하였다.

동지의 정당한 투쟁을 아무 이유없이 억누르는 경찰과 동지의 주검마저 철거하겠다고 위협하여 동지의 삶의 마지막 보루인 가정까지 파괴하려한 현정권의 하수인은 물론 자본가 위주의 노동정책과 교통정책 및 모든 면에서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현정권이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일천만개의 불꽃으로 타올라 억압과 착취를 불사르자!

변형진 동지는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는 노예적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1천만 노동자의 피맺힌 현실을 온몸으로 불살랐다. 때려 죽일 삼반의 무리들은 우리 변형진 동지를 죽였으나 이제 변 동지의 목숨을 건, 장엄한 투쟁은 1천만개의 심지에 불을 당겨 결코 꺼이지 않는 영원한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다. 40만 운수 노동자여! 1천만 노동형제여! 변 동지의 죽음앞에 과감한 투쟁을 벌여 우리 노동자의 손으로 삼반세력을 물리치자!

### 변형진 동지의 성품

변형진 동지는 어려서부터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마음먹으면 그대로 행하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단 한치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격이었다. 동지는 남 술사주는데 일등이었으며, 술을 좋아하긴 했으나 술을 먹으면 쓸데없는 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바른 소리를 잘 하였다.

인정이 많아서 택시운전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어다준 적도 상당히 많았으며, 심지어 몇 해 전에는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의 부모님을 자신의 차로 강원도 춘천에까지 모셔다가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병구완을 했을 정도였다. 부당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해 회사측과 여러번 싸웠으나 그때마다 회사측은 무조건 경찰을 불러 동지를 파출소로 끌고 가게하였고, 그때마다 번번이 무혐의로 훈방되어 나왔으며, 이 까닭에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기대는 아예 없었다고 한다.

### ◎ 추모글

【결의문】

**우리의 결의**

- 변형진 동지를 죽인 사장놈들과 살인정권 깔아 죽이자!
- 운전기사의 개목걸이 취업카드 불태우자!
- 사납금 철폐하고 완전월급제 쟁취하자!
- 운전기사 골병드는 자율버스 철폐하자!
- 3교대 근무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 파업,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우리 손으로 쟁취하자!
- 군사독재 앞장세워 광주민중 학살하고 노동자 농민 피땀짜는 미국놈들을 몰아내자!
- 일천만 노동자의 요구에 등돌리는 신민당을 믿지 말자!
- 가두 총파업으로 군사독재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삼민헌법 쟁취하자!

1986년 5월 2일

취업카드 철폐투쟁위원회



## 신 호 수 (당시 23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

**1963년 8월 8일** 전남 여수에서 출생
**1980년 2월** 성동중 졸업
**1983년 8월** 검정고시 합격
**1985년 6월** 방위 근무
**1986년 6월 11일** 인천시 남구 소재 도화가스에서 근무 중 서울 서부서형사들에 연행후 행방불명
**1986년 6월 19일** 전남 여천군 대미산 동굴에서 변사체로 발견

### ◎ 사건경위

신호수 동지는 1986년 6월11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시 남구 소재 도화가스 충전소에서 가스통 밸브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서울시경 대공수사과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3명의 남자에 의해 연행되었다.

목격자 오욱현씨(인천시 남구 도화동 도화 LPG충전소 근무)의 말에 따르면, 3명의 형사가 무전기와 안테나가 부착된 회색빛 포니2 승용차에서 내려서 "신호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가스통 밸브작업을 하고 있던 신호수 동지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뒤, 함께 소파에 앉아 약 15분간 대화를 했는데, 그들은 겉봉에 "증거물"이라고 쓰인 봉투를 꺼내더니 윗부분을 찢고, 그 안에 든 유인물을 꺼내어 신호수 동지에게 "이게 너희집에 있던 게 맞지?" 하고 묻자 신호수 동지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그 중의 한사람이 "이봐! 거짓말하지 마!"하며 묻는 말에 수긍하라고 다그쳤다. 이 말에 신 동지가 반발을 하자, 한 사람이 약도를 꺼내어 가지고 "너 여기 살았지? 증거물이 나왔으니 순순히 인정해"하면서 재차 다그치며 동지의 혁대를 풀고, 주머니 안에 든 소지품을 확인한 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승용차 뒷자석 좌측에 앉히고, 잠시 후 출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진입해서 서울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

이후 신호수 동지는 소식이 끊겼다가, 8일만인 19일 10시경 강운곤등 3명의 방위병에 의해 고향집으로부터 불과 4km거리인 전남 여천군 대미산 중턱의 한 동굴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사체 발견지점인 굴바위는 여수시로부터 12km 떨어진 대미산 중턱으로 이곳은 도로에서 70° 의 급경사로 100m가량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이 신 동지의 연고지이긴 하지만 5살 때 상경하였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악산이다. 동지는 흰색 면양말에 팬티만 걸친 상태로, 입고 있던 바지를 동굴 바위 틈에 고정시켜 목을 맨 모습이었고, 팔꿈치 위의 양팔은 혁대로 감겨 있었으며, 소지품은 동굴내에서 불태워지고 일부만 남아 있었다.

당시 서부경찰서는 신호수 동지가 방위근무할 때 장판 밑에 모아둔 북한의 삐라(당시 군부대에서는 삐라를 많이 모은 병사에게 포상휴가를 보내주었는데 신동지는 이를 의식, 삐라를 대거 수집하여 장판밑에 보관하다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제대, 나중에 이방에 살게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함)를 문제삼아 대간첩작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장흥공작"이라고 명명하고, 신호수 동지를 연행한 것이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사건 당시 여수경찰서는 가족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형사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추정하고 변사사건으로 처리해 버렸다. 경찰은 1986년 6월21일 발견 이틀만에 전남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공동묘지에 가매장하고, 6월27일에야 가족에게 통보했다.

한편 가족은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오늘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의문점

(1) 신호수 동지의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동지는 평소 명랑·쾌활하고 의지가 강하며, 어려운 가사를 고려하여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고, 고학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할 만큼 효심이 깊었다고 한다. 성실, 근면한 신호수 동지는 독재체제하에 신음하는 사회현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각국의 자주화와 민주화에 관련된 서적과 유인물을 많이 읽었으며, 가끔 친구들과 같이 집에 와서 토론하곤 했다. 그리고 5·3인천사태 직후 경찰이 여수 집으로 찾아와 동지의 신원과 행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신 동지의 연행이 5·3인천사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더구나 경찰이 "장흥공작"이라고 명명을 붙일 정도로 가치있는 사건의 혐의자를 연행 3시간만에 풀어주고 서울역까지 배웅을 하고 차비까지 주었다는 서부서 담당형사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2) 신호수 동지는 서울시경 대공수사반을 자처한 세 사람에게 불법 연행된 뒤 소식이 끊겼다가 8일만에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은 1986년 6월19일 사체가 발견되자 이틀 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1986년 6월21일 재빨리 가매장 하였으며, 1986년 6월27일에야 뒤늦게 가족에게 통보한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한 기도로 밖에 볼 수 없다.

(3) 더욱이 변사체를 확인한 박산수씨(전남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도실부락 새마을 지도자)는 "사체를 살펴보니 백색 면양말을 신었는데 양쪽 발목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무릎에 상처가 있었으며, 양쪽 팔목에는 잉크색의 멍이 들어 있었다"고 얘기했다. 덧붙여 "느낌에 자살한 시체 같지는 않더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체의 상태가 타살 흔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4) 또한 최초로 사체를 발견한 방위병의 말에 의하면, 사체 발견시 목부분이 입고 있던 바지로 감겨져 있었고, 양손이 모아진 상태이고, 가슴부분은 양팔을 휘감아 등부분과 함께 허리띠로 감겨 있었으며, 팬티 차림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자살 행위라고 판명할 수 없다.

(5) 인천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집 가까이의 험악한 산으로 올라가서 유서 한 장없이 자살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사체 발견시 자살 시기를 4-5일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는 경찰 수사를 받은 직후이고, 경찰에 연행되고 사체로 발견되기까지 신호수 동지를 보았거나 만난 사람이 직장, 집주변, 친인척을 포함하여 아무도 없다고 하는 바, 결국 수사과정에서 살해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6) 경찰에서 신호수 동지가 작성하였다는 진술서의 필적은 원래의 필적과 다름이 필적감정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동지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다.



# 이순덕 (당시 31세) 墓

| | |
|---|---|
| 1956년 | 충남 예산 출생 |
| 1979년 | 한양대 체육과 졸업 |
| 1984년 | 홍성 YMCA중등교사 협의회 회원활동 |
| 1986년 3월 | 서천군 서면 중학교로 좌천 발령 |
| 1986년 6월 28일 | 충청지역 교육민주화 실천 결의대회 참가 |
| 1986년 8월 | 파면 |
| 1987년 1월 3일 | 운명 |

## ◎ 동지의 삶과 죽음

전교조가 채 밝아오지 않은 이른 새벽인 87년 1월 3일, 이순덕 동지는 학교 계단에서 쓰러져 5개월의 투병생활 끝에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충남에 살면서 서울 명동까지 가서 파마를 한다고, 학생이 자습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망신을 주던 이순덕 동지는 84년 5월 예산여고에서 박경이씨를 만나면서 참교육에 발을 들여놓고 불꽃처럼 치열한 삶을 살았다.

대전 체육고 재직 시에는 당시 민중교육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뒷바라지에 힘을 쏟고 좌천 발령된 서천의 서면 중학교에서도 학생 및 동료들과 온 몸으로 함께 하였다. '깨달은 것은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곧은 성품으로 충청지역의 교육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끝내는 파면됐다. 양심선언문을 직접 만들어 뿌리던 이순덕 동지는 분명 참교육의 '당찬 새벽'이었다.

# 표 정 두 (당시 24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

| | |
|---|---|
| **1963년 4월 1일** | 전남 신안군 암태도 출생 |
| **1979년** | 송정 중학교 졸업 |
| **1979년** | 광주 대동고 입학. 독서회 활동 중 5.18당시 정학처분 |
| **1982년** | 광주 대동고 졸업 |
| **1983년** | 호남대 무역학과 입학 |
| **1986년** | 호남대 자퇴, 야학 교사로 활동 |
| **1987년 2월** | 하남공단 신흥 금속에 입사 |
| **1987년 3월 6일** | 세종로 미대사관 앞에서 분신 |
| **1987년 3월 8일** | 운명 |

## ◎ 동지의 삶과 죽음

1987년 3월6일 표정두 동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근처 하적장 부근에서 캐로신을 몸에 끼얹고 불을 붙인 후 "내각제 개헌 반대"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박종철을 살려내라" "광주사태 책임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한미대사관 앞으로 30미터 가량 달리다 쓰러졌다. 이때 행인 2명이 발견하고 웃옷을 벗어서 끄려고 했으나 못끄고, 교통 경찰 2명이 근처 가게에서 분말소화기로 불을 끔. 이후 고려병원으로 이송되어 담당의사에게 "나는 광주 사람이다. 광주호남대학을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그만두고 하남공단에 있는 신흥금속에서 근무중인 노동자다."라고 말하며 집 전화번호와 유서를 인근 다방에 놓아두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분신 당시의 가방 속에는 "내각제 반대" "장기집권반대"라는 쪽지와 술츠의 방한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신문뭉치등이 들어 있었다.

## ◎ 동지를 생각하며

너는 진정한 이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들의 삶의 건강함을 위해 우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몸소 실천하고자 했던 의지인이며 자유인이었다.

멋모르던 사춘기 때 5.18을 맞아 잔인무도한 미국놈들과 그 하수인인 군부독재의 만행에서 분노해야만 했고, 탐욕스런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이나라 농민은 물론 농산물을 취급하는 상인까지 목을 조여 급기야는 너의 가정에도 파산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렇듯 철저하게 이땅 민중의 피를 말려가는 미국놈들의 간악한 경제침탈과 군사원조라는 미명하에 정치간섭까지 행하는 백악관의 더러운 악의 손들이 하늘 가린, 식민지 한반도의 암울한 현실은 너의 활화산같은 분노를 미대사관앞에서 한덩이 불꽃으로 일렁이게 하였다.

친구야!

이제 막 동면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의 울음이 봄을 알리듯이 우리의 서러운 울음들이 너에게도 봄을 가져다 준다면 삼백예순날, 이목청 다하도록 피울음이라도 토해보련만, 우린 결코 아픔을 울음으로 토해내지 않으련다. 우린 너의 타버린 몸뚱이를 분노로 기억할 것이며 고통속의 외침을 실천으로 들으리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햇빛 쏟아지는 도청 앞 광장에서 기쁨의 함성 울려퍼질 그 날, 우리 뜨거운 가슴 맞부비며 너의 환한 미소 기억하리라.



## ◎ 유고글

**[동지의 글]**

나답게 살고 싶다.
한가지 일에만 몰두하고, 한가지 목표와 원칙과 방법과 입장과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한 여자만 사랑하고 싶다.

**[시]**

친구야,
오월의 화려한 계절의 자유도 잠시 뿐,
오월의 화려한 계절의 해방도 잠시 뿐,
지금은 모두다 비싼 눈물로 잠들어 버리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여러 천년의 기억속으로 달음질친다.
생명의 시작과 끝이 같다고 믿는 모든 이들을
너와 나의 축제에 초대하자.

# 황보 영국 (당시 26세)

**墓 화 장**

**1961년 9월 16일** 부산 출생
**1979년** 성지공고 중퇴
울산 현대중공업, 부산 삼화고무, 태화고무 근무
**1987년 3월 3일** 박종철 동지 49제에 참가, 연행되어 일주일간 구류
**1987년 5월 17일** 부산 상고앞에서 분신
「독재타도」「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책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를 외치며 달리다
쓰러짐
**1987년 5월 25일**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황보영국 동지는 1961년 9월16일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출생하였고, 부산 성지공업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방위병 근무를 마치고 울산 현대 중공업, 부산 삼화고무, 태화고무, 우성사 등에서 연강판전기 용접, 중장비 운전 등의 기술을 익히면서 노동자로 생활하던 동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였다.

26세 되던 해인 1987년 5월17일 오후 4시47분경, 광주항쟁 7주기를 맞이하여 거사를 결심한 황보영국 동지는 부산시 서면 부산상고 앞에서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후 "독재 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책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를 계속 외치면서 100여m를 달리다 귀거래 식당 앞길에서 쓰러졌다.

황보영국 동지는 쓰러지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절규하며 혼절했고 그 후 경찰에 의해 백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하다 일주일만에 끝내 운명하였다.

## ◎ 동지를 생각하며

1987년 음력 정월 00일에, 박종철 추모제를 지낸다는 소식 듣고, 충무동 거리에서 식 올릴적에 무더기로 잡혀 들어가다가 4일밤 자고, 그 속에서 신민당 국회의원 변호사도 오고 투쟁하는 것을 보고, 또 임신 8개월된 아줌마가 와서 남편이 징역가니 이놈들아 나도 집어넣으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몇번을 되풀이하고 또 순경들이 사진 4장 찍어 부친 것을 보고 이건 완전 독재다 하고, 죄없는 사람 징역가는 것을 보고 몇사람 투신자살하면 갇힌 사람 다 나온다고 해 내가 피를 뿌리고, 천당가면 죽는기 아니고 영영 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엄마는 내가 피를 막 뿌리고 하늘 나라로 가면 그 돈 다 어데 쓸라고...말해봐라. 엄마 나는 민중에 가입했다 하고, 서울 갈라고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서울가면 언제올지 모르니까 형님 생신이나 갔다와야지.. 회사에서 2만원 가불해서 갔다와...

〈황보영국 동지의 분신 후, 모친께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누며 지난날을 회상해 쓴 글을 동생 황보영찬씨가 옮겨 적은글〉

## ◎ 추모글

【추모의 글】

**온몸으로 피워올린 노동자의 불꽃**

4.13 호헌조치 이후 부산에서는 호헌 반대열기가 고조되었다. 부민협은 기관지 '민주시민'과 시국선언물 유인물 소식지를 통해 4.13 호헌조치의 부당함을 알렸고 대학내에서 학민투를 성공리에 마친 대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시민들을 상대로 '독재타도'와 '호헌철폐'를 선전선동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민주화 운동은 박종철 열사 추도식과 박종철열사 49제에 경적을 울리며 참여한 운수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주로 재야인사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5.17 젊은 노동자의 분신이 부산의 민주화 운동에 충격을 던진다. 이날 오후 4시20분경 서면 부산상고 앞 복개천 도로에서 노동자 황보영국씨가 '독재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책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를 외치다 서면시장 부근 도로에서 쓰러져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규했다.

그러자 주위에 멍청히 서있던 전경들이 뛰어와 에워싸고 그대로 내버려두려 했으나 주변 식당의 아주머니들이 소방호스를 들고 나와 옷을 덮고 물을 끼얹어 불을 끈 후, 119 긴급구조차로 백병원으로 이송하여 중환자실로 옮겼다.

황보영국씨는 811호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불명인 상태에서도 붕대로 칭칭 감긴 손을 꿈틀거리며 '독재타도'를 신음처럼 외쳐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한편 경찰은 황보영국씨의 병실 앞에 사복형사를 배치, 병원측과 합세하여 면회사절이라 걸어놓고 아예 병실 앞에 죽치고 앉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신부, 변호사, 재야인사 등의 외부인 통제를 간섭하면서 단 몇 초 동안의 면회시간을 주는 등 분신을 은폐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경찰의 협박과 회유로 가족들은 개인적인 문제다, 영국이는 친구가 없다,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경찰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 등으로 자식의 분신원인을 밝히려 하기는 커녕 끝까지 함구, 찾아간 사람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거의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황보영국씨는 쥐어짜듯 신음처럼 '독재타도'를 외치며 홀로 몸부림치다 25일 새벽 5시 숨을 거두었다. 이날 정오에 화장을 하였다는 소식에 놀란 민가협 어머니들과 인권위, '민주시민' 실무자 등이 당감동 집을 방문하여 조의금을 전달하며 애도의 뜻을 표하고, 화장하기까지의 사정을 물었으나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 의구심이 일었으나 설마 자식의 일인데 숨기랴하며 돌아왔으나 다음날인 26일 오전 9시에 당감동 화장터에서 화장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회유로 시신마저 은폐하려는 행위는 민주시민을 분노하게 하였다.

황보영국씨의 가족이 자식의 죽음을 감추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경황이 없는 가족들에게 가한 경찰의 잔악한 협박과 회유때문이었다. 얼마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면 자식의 화장조차도 숨기려 했을까. 훗날 민가협 아버지로 열렬한 민주투사가 된 박종철의 부친 박정기씨도 처음에는 경찰의 협박에 주눅이 들어 기자들앞에서 "내 아들이 못돼서 죽었소"라고 말했다. 황보영국씨의 분신소식이 만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겨우 알려졌고 그 전에 먼저 경찰들이 손을 쓴게 아쉬웠다.

〈6월항쟁 항쟁일지
(부산지역 유월항쟁 자료발간위원회)중 발췌〉

# 김 현 욱 (당시 21세)

**墓 화 장**

| | |
|---|---|
| 1966년 3월 20일 | 인천에서 출생 |
| 1985년 | 운봉고등학교 졸업, 진흥요업 근무 |
| 1986년 | 해군 방위병으로 입대 |
| 1987년 | 6월 민주화 대투쟁 적극 참여 |
| 1987년 8월 1일 | 사랑방교회 노동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 참여.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고 운명 |

## ◎ 동지의 삶과 죽음

김현욱 동지는 1966년 인천의 문학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 위로는 두 분 형님과 아래로 남동생을 둔 4형제 중 셋째로 태어나 넉넉치 않은 집안형편이지만 때로는 짓궂게 때로는 얌전하게 티없이 자라왔다. 성장과정중 내성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었으나 항상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즐겁게 어울려 다녔다. 남들처럼 잘하는 공부도 아니었고 특별히 뛰어난 것은 없었으나 공차기나 뜀박질 등 사내다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그리고 잘 해내었다.

생활은 항상 성실하고 근면하여 개근상장은 빼놓은 적이 없었고 남달리 "의리"에 충실한 삶을 키워나갔다. 중학교 졸업 후 운봉공고에 입학한 동지는 이 사회의 문제들을 어렴풋이 깨달아 갈 수 있었다.

운봉공고 시절은 군대식 생활속에서 재단의 횡포속, 선생님들은 공납금 수금에만 신경쓰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학생들은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오직 졸업장에만 급급하였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현욱 동지는 대학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공부를 하려 했지만 도저히 그럴 능력도 생활형편도 되지 않아 공부를 포기하고 진흥요업에 취직을 하였다. 막상 취직을 하고 보니 공장에서의 생활은 고등학교의 생활보다 더 비참한 것이었다.

지긋지긋한 노동조건과 기계같은 생활의 반복 속에서 동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즉 이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의 고민이었다. 빠빠지게 일을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속에서 친구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을 알고부터 더욱 더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86년 가톨릭 노동사목회에서 주최하는 자기발견 교육에 참가하여 드디어 동지가 고민하던 것들이 해결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김현욱 동지 자신이 노동자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잘못된 사회를 뒤집어 엎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에 참가하게 되면서부터 이 일들이 진정한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을 체득함으로써 동지는 노동자로서 죽을 때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3,350원의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 쉼없이 잔소리, 욕설로 대접해 오는 진흥요업 현장에서의 노동생활은 동지의 자기발전을 쉼없게 만들었다. 늘상 자신의 가장 큰 가치관이었던 '의리'를 바탕으로 겁없이 옳은 소리, 할 말하는 현장의 고집쟁이였고 화끈한 노동자의 생활을 계속했다. 동지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싸움들 속에서 자본의 본질과 노동자의 단결에 대해 보다 풍부하고 실천적인 습득을 이루어낸다.

86년 6월 평상시의 일상투쟁과 회사 대중의 불만은 100여명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의 싸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싸움은 진흥요업 노동자들의 훌륭한 배움터였다. 김현욱 동지도 많은 걸 배웠다. 가장 큰 것은 동료에 대한 신뢰였고, 단결로써 쟁취하고 단결로써 자본가를 굴복시키고 단결 앞에 온갖 기만과 협박과 회유를 일삼으려는 비열한 회사측을 보면 노동자의 힘에 대한 무한한 감격과 기쁨을 느꼈다.

김현욱 동지는 이제 노동운동을 결심하고 맹목적으로 실천했던 과거와 다르게 대중은 무엇이며 '지도'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었다. 실제로 싸움 속에서 간악하고 교활한 자본가들에게 단지 불만만 터뜨린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할 뿐아니라, 문제해결을 회사측에 일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단 한 번의 싸움이라도 이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힘을 축적 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노동자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우리들의 요구를 정확히 수렴해야 하고 또 수렴되어진 요구를 가지고 자본가에게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야 했다.

이에 각 부서마다 대표를 뽑고 그 대표에 의해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전체 의견화하고, 전체 의견으로 정리된 것은 노동자 모두가 통일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것은 민주 노조 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면서도 김현욱 동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또한 잘못된 회사측 입장을 폭로하는 데 아는 것이 모자라 많은 부분이 딸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싸움은 승리했다. 억센 단결과 비타협적이며 당당한 노동자들의 진취적 행동이 끝내 임금인상투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이었다.

이후 김현욱 동지는 노동운동을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보다 과학적으로 해나가기에 매진한다. 배움에 대한 욕구도 강력했고,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노동자의 단결과 이 사회의 모순에 대해 토론하고 깨우쳐 나가는 생활을 지속한다.

86년이 채 넘어가기 전 방위소집을 받았음에도 동지는 학습의욕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자기생활을 해나가고 자신을 보다 올바른 노동자로 규정짓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던 것이다.

87년 7월말, 군복무중 휴가기간을 맞이하였다. 군복무중에는 노동운동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폭넓은 시각을 갖는데는 여건이 어려웠다.

김현욱 동지는 휴가를 맞아 보다 유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회나 성당 그리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동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책이나 자료 등을 소개받고 현장의 소식도 들으며 자기 변화에 채찍질을 해나갔다.

8월1일부터 3일까지의 "인기노" 주최 수련회는 김현욱 동지가 보다 많은 노동형제들을 만나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대화를 가지며 자신을 동료들 속에서 평가하고 스스로 비판해 나갈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무척 맘설레는 것이었다.

열정적인 김현욱 동지의 모습은 수련회에 임하는데 있어 더욱 맹렬하고 확고한 것이었다. 수련회장을 향하는 버스 안에서 노동자적 삶과 가치관에 대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은 함께 동행한 동지들을 감동시켰고 그의 가슴 속에 맺힌 노동자로서의 감성들은 노래로서 열창되어졌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김현욱 동지는 수련회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벌어진 조별, 팀별 모임에서도 유감없이 자신의 입장들을 개진해 나갔다. 팀가(팀노래) 및 조가(조노래)의 창작에 적극 참여하고 수련회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칙들을 올바른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잠시후...

"의리"를 생명으로 여기던 김현욱 동지는 그후 이어진 물놀이에서 죽어가는 동지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물에 빠진 동지를 구하고, 짧고 굵은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다.

# 이 대 용 (당시 24세)

**墓 화 장**

| | |
|---|---|
| **1963년 4월 3일** | 전북 고창에서 출생 |
| **1977년** | 인천 석남동소재 선화알미늄 입사, 야간중학교 입학 |
| **1986년** | 동양튜브에서 임금인상 30%쟁취 투쟁 |
| **1987년 8월 1일** | 산마루교회노동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에 참여하던중 동료를 구하고 운명. 화장 |

## ◎ 동지의 삶과 죽음

87년 8월1일부터 3일까지 매포수양관에서 열린 인천기노련 주최 '인천지역노동자 여름수련회'에서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속에 수련회에 도착한 270여명의 노동형제들은 조편성과 방배정을 마치고, 뒤 순서인 물놀이에 들어갔다. 불과 1주일전 답사때는 위험표지판도 없었고, 물살은 빨랐으나 깊은 곳이라야 가슴을 넘지 않았기에 물놀이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물놀이 장소의 바로 옆에 얼마전에 불법골재 채취작업을 하여 깊은 웅덩이가 파여 있는 것을 몰랐던 일행 중 한명이 갑자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한 3명의 노동자가 뛰어가 1명을 구했으나 그중 구하러 들어간 두명이 힘이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이에 수십명의 노동형제들이 인간사슬을 만들어 구출하였으나 그중 이대용, 김현욱, 박용선, 유인식 동지는 자신이 구해낸 동료들의 품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이 네명의 동지는 자신의 생사를 돌보지 않고 동료들을 구해내는 동지애로 산화하였다.

## ◎ 동지를 생각하며

**이대용 동지가 걸어온 길**

이대용 동지의 집안은 불타는 태양아래 뼈빠지게 농사짓고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뭐하나 마련 못하는 사무치는 가난을 이기고자 절약과 궁핍 속에 발버둥쳤지만 결코 헤어날 수 없었다.

농촌에서 더 이상 주저앉기를 거부하고, 행여 도시에 올라오면 끼니라도 제대로 이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속에 정든 집과 고향을 등지고 동지의 집안은 인천에 정착했다.

지게를 져야했던 아버지와 어린 동지를 등에 업고 채소행상을 하셔야만 했던 어머님과 그 밑에서 험하게 살아야만 했던 가족들... 동지는 부모님의 아픔을 더욱 더 저리게 만들만큼 울음이 많았다. 또한 행상하는 어머님이 손님을 만나 물건을 풀어야 할 때면 등뒤에서 어머님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며 울었다고 하는 대용 동지... 어머님의 가슴에 슬픔과 한을 쏟아 부었던 갓난 시절 동지의 울음은 이후 성장하면서 지극한 효성으로써 어머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왔다. 동지는 자신의 성장과정을 정성들여 기록해 놓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성장과정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무한한 애정의 표현이자 모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사랑하며 대변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동지는 삶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분명 어렵게 배고픔과 허기를 참아내며 공부를 하였으나 동지는 이 공부가 진정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와 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갈등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지는 억척같이 삶을 살아 오면서도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이 사회의 구조에 분노를 느꼈다. 대학도 더 이상의 공부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노동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공장에서 노동자로서의 삶은 그가 살아온 것 만큼이나 비인간적인 대우와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그러나 동지는 여기에서 절망과 포기보다는 꿋꿋하게 일어서서 진정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맹세하였다.

더 많은 동료와 뜻을 같이 하기 위해 타동료를 만나 대화하며 자본가들의 착취에 대해 흔들림없이 싸워나갔다. 이 시기에 동지는 군복무를 위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군생활을 하면서도 동지는 노동자로서의 신념과 강한 의지를 다졌고 공부하고 실천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제대를 하고 바로 동지는 과거의 삶을 재확인하며 노동자로 더욱 더 헌신할 것과 이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 다시 현장에 뛰어들었다.

1986년 초반 진흥요업에서 착취와 비인간적인 대우에 반대하며 투쟁을 주도하였다.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찾고 노동자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와 하나로 뭉쳐 단결을 다지고 자본가와 한치의 타협없는 싸움을 전개해 나갔다. 이것을 통해 동료들과 동지는 하나가 됨을 확인하며 앞으로 이땅,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의 위치와 권리를 찾고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노동자로 살아갈 것을 재결단하였다. 그 후 동지는 동양튜브에 입사해 자본가들의 끊임없는 착취에 더 이상 노동자가 멸시 천대 속에살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의 진정한 해방의 길을 앞당기기 위해 다시 농성을 주도하였다. 임금인상 30%, 보너스 10% 쟁취, 그외 근로조건 개선 등 투쟁을 통해 그의 선도성과 동료에 대한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그 후 그는 선창산업에 입사해 변함없는 생활을 계속해 나갔다. 동료들과 함께 노동자로서 올바른 삶을 결단하여 토론과 일상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의 인간적인 면과 불굴의 투쟁정신은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동지에 대한 한치의 변함없는 의리는 다른 동지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부모님께는 강한 효자로서 믿음직한 막내이며, 그의 삶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힘을 주었고 흐뭇하게 하였다.

동지의 평상시 그런 모습과 삶은 수련회에서도 참가한 동료들의 모범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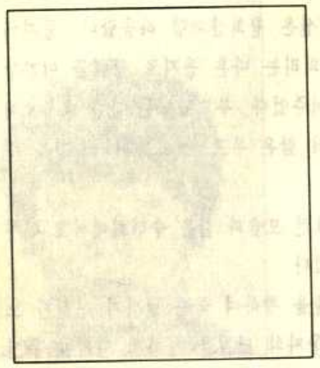
차 속에서 동료들을 향하여 죽는 날까지 진정한 노동자로 살아갈 것과 노동자의 단결을 강하게 외치며 투쟁하겠노라 다짐을 하였던 동지! 조별 토론시간에는 자발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조의 신뢰와 단결력을 강화하고 후배들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과 지도력을 역력히 보여 주었다.

물놀이 과정에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동지의 죽음을 그는 방관할 수 없었다. 수영을 잘 못하는 개인적인 조건보다 동지를 죽음에서 구출해야 된다는 신념이 더 강했던 것이다. 거의 의식을 잃은 동지를 구출하고 다시 또 물속에 뛰어들었던 그 강한 동지애여, 값진 희생이여! 동지는 우리들의 횃불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노동자의 단결과 해방이 무엇인지 일깨워주지 않았던가.

동지의 삶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고 불의에는 한치의 용서와 타협없는 투사였다.

# 박 용 선 (당시 20세)

**墓 화 장**



| | |
|---|---|
| 1967년 10월 16일 | 강원도 홍천 출생 |
| 1983년 | 동인천 중학교 졸업 |
| 1985년 | 한국릴레이 근무 |
| 1987년 | 백마교회 문화잔치 2기생 졸업 |
| 1987년 8월 1일 | 백마교회 노동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 참여 물에빠진 동료를 구하고 운명 |

## ◎ 동지의 삶과 죽음

박용선 동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라는 부모님과 누나의 말을 뿌리치고 어려운 가정 사정을 생각하여 "나도 돈을 벌겠다"며 진학을 포기한 채, 낯설고 낯선 공장문을 16살의 어린 손으로 두들겨야만 했다. 이렇게 그의 사회생활은 시작되었다. 초기 현장생활에서의 그의 모습은 촌스러울 정도로 내성적이고 수동적이며 말이 없었다.

공장생활 하는 중에도 어머님의 생각은 그의 가슴을 다 메꾸어도 부족했다. 항상 속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님을 걱정하고, 어머님이 아프실 때는 조퇴를 하면서까지 어머님의 병간호에 구슬땀을 흘리며 어머님의 아픔을 같이 나누었다.

술드시고 돌아온 아버님께 두 무릎을 꿇고서 새벽 4시까지 아버님의 맺힌 한과 푸념을 묵묵히 같이 나누곤 했다.

내성적이면서도 한번 사귄 친구에 대한 지극한 정성은 그의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게 했다. 한 번은 외판원 하는 친구가 혼자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타까와서 하루종일 친구의 짐을 들고 다니며 "잘 안팔린다. 어째 안팔리지"하며 친구의 근심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었다.

이런 그에게 〈살아온 이야기〉 노래는 왠지 마음을 끄는 것이었다. 그는 이 노래를 배우고자 회사 친구를 무척 따라다녔고, 그래서 그와 함께 백마교회 문화잔치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계기가 이 사회와 우리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올바르게 알게 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이다. 동지는 4.19강연을 듣고는 "저렇게 어린 국민학생도 악의 무리에 항거해 싸워왔는데 나는 무엇을 했나"라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 박정희가 독립투사를 때려잡는 만주군 용사였음을 알고는 자신이 너무 모른다고 생각, 좀더 알기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 "테레비만 좋아라 믿는 놈은 얼빠진 놈"이라는 박노해씨의 〈진짜 노동자〉를 보고는 "그럼 나도 얼빠진 놈이네"라고 겸연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올바르게 보면서 현장생활에도 크나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똑똑해 보이던 관리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권위를 앞세우고 노동자 위에 군림했는지 알게 되었다. 이래서 얌전했던 그가 관리자들의 횡포를 보고는 심한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다.

6월투쟁은 그에게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다. 6월 10일 거리투쟁에 처음 참가하는 설레임과 두려움을 갖고 참석했다. 참석했던 대중들의 호응과 친구들의 신뢰에 큰 힘을 얻어, 유인물까지 배포하던 그의 눈동자는 사회의 모든 모순을 정화할 수 있는 눈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친구와 스크럼을 짜고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목청높이 외쳐대던 모습, 최루탄에 눈물 흘리며 재채기를 하면서 현 정권의 쓴 맛을 알았고 현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발사에 흩어지는 대중을 보며 단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6월 18일 최루탄 추방대회에 참석하면서 청천동 일대를 장악하면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새벽 3시 미친 듯이 최루탄을 쏘아대며 한곳으로 밀어넣어 마구 잡아가던 그들의 무차별 폭력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싸움의 과정들 속에서 그는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그래서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가졌다. 소위 노태우의 6.29선언이 발표되고 난 후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싸움의 결과이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 노태우의 민주화 8개 조항가운데 생산의 주체이자 역사의 주체인 노동자의 요구조건은 하나도 없다면서 어떻게 이땅에서 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 천만 농민, 500만 도시빈민을 무시한 민주화선언이 진정한 민주화선언일 수 있겠는가 하며 분노하기도 했다. 따라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민주화조치가 아니라 국민과 진정한 민주화세력을 이간질시키려는 이간책이 아니가 하고 묻기도 했다.

이러한 조그마한 모임 속에서 동지들은 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친구를 아껴주었고 친구들이 회사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하였다.

소위 6.29 민주화조치가 발표된 이후 7월 12일 이한열 추모 및 구속자 전원석방 촉구대회가 개최되던 날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며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농성을 하였다. 농성기간에 동료들이 안에서 충분히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6일간 전투조에 참가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특히 비가 억수같이 몰아치던날 밤, 속옷까지 젖으면서도 흔들림없이 성당을 지켰다. 어느 때보다도 그의 얼굴엔 밝은 미소가 떠올랐고, 흐뭇해했다.

특히 새벽 4시, 엄습해 오는 잠을 쫓아내려고 "새벽잠을 몰아내고 군부독재 타도하자"고 외쳐대던 그 목소리, 이게 바로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성당 안에서 신포시장을 내려다보던 동지는 시민들이 군화발로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외쳤다.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무섭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고 두 눈을 부릅뜨며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힘주어 피끓는 절규로 외쳤다.

마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온 몸으로 부딪혀서 깨부수려는 동지의 정신은 우리의 삶속에 영원히 남아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수련회 간다는 것을 무척이나 기쁘게 받아들였다. 어머님의 병환, 곧 있을 군입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동지는 동지를 위하여 기꺼이 한 목숨을 바쳤다.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라져 갔다.

동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죽음을 택했던 그의 진실된 동지애는 동지들에게 커다란, 진실된 굵직굵직한 눈물로 어두운 곳에 햇살로 비춰주듯 동지들을 정화시켜 주었다.

그렇다! 우린 분명히 알고 있다.

오직 동지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지옥같은 노동현실을 바꾸고 우리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 ◎ 유고글

【동지가 남긴 글】

### 차 돌 멩 이

1.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에는 하나가득 허망뿐이네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 보아도
만난사람 모두가 코방귀 뀌네 흥흥흥
자 모이자 차돌맹이로
굳게굳게 어깨걸고 차돌찾으러

2. 돈(유행)좇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염라씨 부르시면
쓸모없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우리 사랑은 지구에 종말이
온다해 봐도
자- 모이자 차돌맹이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차돌찾으러

3. 세파에 시련이 닥친다 해도
모든 것은 한꺼번에 뺏긴다해도 차돌맹이
가슴속에 뚜렷이 있다
하나의 높은 꿈의 세계가
자~ 떠나자 차돌 찾으러
꿋꿋하게 살아가는 차돌 찾으러

〈노래 '고래사냥'을 동지가 개사한 것임.〉

# 유 인 식 (당시 24세)

墓

| | |
|---|---|
| 1963년 7월 | 인천에서 출생 |
| 1982년 | 고려대학교 철학과 입학 |
| 1985년 | 노동현장에서 청년회 운영위원으로 활동 |
| 1986년 | 샘터교회 청년회 운영위원으로 활동 |
| 1987년 | 한국기독노동자 인천지역연맹 대표자회의 성원<br>6월 대투쟁 적극 참여 |
| 1987년 8월 1일 | 샘터교회 노동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노동자 여름수련회 체육부장으로 참여, 동료를 구하고 운명 |

## ◎ 동지의 삶과 죽음

유인식 동지는 직작없이 하루하루 일거리를 찾아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시던 부모님 사이에서 2남1녀중 막내로 태어났고, 그후 철도노동자로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셨던 부모님 아래서 살아왔다.

어렸을 때는 개구쟁이에 말썽꾸러기, 느림보라는 별명이 붙었고 국민학교 시절 부잣집 아이가 짝궁을 하기 싫다고 자리를 옮겨갔을 때 자신은 그때부터 계급적 분노를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다고 술회했다.

그는 연구반 활동을 통해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고, 늘 부모님께는 대화를 하려 했던 총명한 아이였다

중학교 시절 학습에 열중하는 친구들을 보며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과서에만 치중해야하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마치 국민학교는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대학을 대학은 직장, 직장생활은 결국 죽음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이고 인간에게 보다 참다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그 시절부터 시(詩)를 통해 자기의 삶을 표현했다.

동지는 중학교 시절 "미지"라는 시에서 이런 심정을 표현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종이배를 띄우고 싶소.
누런 황금벌판의 수확 속에 넘치는 인고의 결실을
온 세상 사람에게 그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소"

이는 어렴풋이 삶에 대한 심중을 노래한 것이다.

동지는 철학과 문학에 심취했고, 고교시절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활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런 고민을 했었다.

삶의 목적은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에게 이러이러하게 살겠노라는 의지임을 깨달은 후에 사회과학을 통해서 휴머니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젊은이가 가졌듯이 착취와 무질서, 폭력이 없는 사회를 갈망했다.

동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 민중항쟁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된 삶인가에 대해 주위의 친구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사회과학 공부를 시작했다.

또한 문예반 활동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시로써 표현했었다. 대표적인 시로는 "어둠 그리고 사슬" "부자와 도둑놈" "몸부림 1.2" 등 다수가 있는데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아픔과 고민을 시로 표출했다. 답답한 고교시절을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극복해 나가면서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82년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1학년1학기 때 학내 써클에 가입해서 고교시절부터 생각해왔던 민주화의 대열에 앞장섰다. 학교내에 경찰이 진주하고 학내 집회조차 열기가 힘들었던 1, 2학년 시절을 보내면서 한반도의 상황속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으며, 이때부터 유인식 동지는 노동자의 아픔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곤 했다.

결국 노동자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함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현장생활을 준비하였고, 1985년 구로공단내 금속공장에 들어갔다. 현장생활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배우고, 이 땅의 노동자는 뭉쳐야 하며 그럴 때 노동자들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일어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입사한지 몇 개월 후에 신분이 드러나서 공장을 나와야만 했다.

그 후 1986년 9월부터 인천대 앞에다 사회과학 전문서점 "밀물"을 운영하며 인천에서의 또다른 현장생활을 준비했다. 서점을 통해서 많은 후배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며 서점을 하면서 86년 7월말 샘터교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8월초부터 십정동 노동청년들을 모아 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노동운동, 한국의 역사 경제 정치상황 등에 대해 밤새워 토론하고 학습을 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노동청년들이 자기 삶에 대해 고민하고, 보다 올바로 살기 위해 고민했으며, 앞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의하였다.

87년 2, 3월 박종철 추모기간에는 같이 공부한 노동청년들과 거리로 나가 군부독재의 만행을 폭로하는데 앞장서서 싸워 나갔으며 노동청년들의 정치의식을 일깨우는데 헌신하였다.

87년 5월 그동안 같이 고민했던 노동청년들을 모으고 좀더 많은 대중들을 모으고자 샘터교회 청년회를 만드는데 노력했으며 실제적으로 홍보부를 맡아 운영해 나갔다.

87년 6. 10일 국민 평화대행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 헌신적으로 싸웠으며 계속 6.18, 6.26 가두시위 때도 노동청년 회원들과 더불어 선두에 서서 군부독재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데 앞장서서 싸웠고 주위의 동료가 경찰에 잡혔을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뛰어가 구출해 내고는 하였다.

87년 7월 양심수 전원 석방 축구대회에 참여하였고, 그 후 답동성당 농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직접 각목을 들고 경비를 서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토론할 때에는 노동자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헌신적으로 임했다.

87년 7월말 수련회 실무위원회 조직부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수련회에 가서도 조직부의 생활부장으로서 보다도 같이 간 노동청년들과 같이 토론하며 놀기를 더 원했다. 사고가 나자 동료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멀리서부터 뛰어왔으나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과 사람의 손을 연결하여 최선두에 서서 동료를 구하려고 하였다.

결국 동지는 자신의 안녕보다는 노동자들의 슬픔을 더욱 깊이 생각했으며,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모습들을 개혁하고자 몸부림쳤고, 고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보다는 동지를 더욱 사랑했던 것이다.

# 이 석 규 (당시 21세)

墓 남원 선산

1966년 11월 30일전북 남원 출생
1982년 용북중학교 졸업
1983년 광주 직업훈련원 수료
1984년 (주) 대우 조선 입사. 선각소조립부 근무
1987년 8월22일 김우중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옥포아파트 사거리에서 동료들과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중 오후 2시40분경 폭력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대우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3시30분경에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이석규 동지는 벽지 농촌마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려운 집안형편을 돕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산업현장에 뛰어들게 되었고 월 30만원의 임금, 월 560~580시간을 일해야 하는 지옥같은 생활 속에서도 꿋꿋이 살고자 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거센 파고에 이어 7월말부터 전국적으로 번져가기 시작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권익 투쟁은 대우조선에도 휘몰아쳤다. 1987년 8월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노조결성", "임금인상" 등을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고 노조를 결성하며 회사와 협상을 시도하였다. 결렬되는 협상과 회사의 기만적인 태도에 노동자들은 가두로 진출하였고 평화적 시위를 선언했지만 경찰은 무차별하게 진압하여 노동자와 시민들을 더욱 더 분노하게 했다. 대우재벌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투쟁을 무성의와 공권력으로 짓밟았고 대우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해 또다시 평화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87년 8월22일, 김우중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옥포아파트 사거리에서 동료, 가족들과 평화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지 않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앉은 걸음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경찰은 직격 최루탄을 난사했고 백골단은 흩어지는 시위대를 골목 구석까지 쫓아가서 짓밟고 옷을 발가벗기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아이들과 임산부까지 나선 평화시위를 무자비하게 짓밟던 와중 이석규 동지가 직격최루탄을 맞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운명하였다. 이후 민주동지들의 장지인 망월동으로 향하던 중 갑작스런 장지의 변경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살인경찰 구속과 피해보상, 휴업 조치 철회의 조건이 수락될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했으나 정권과 언론은 사체를 볼모로 한 노동쟁의 방법이라고 일제히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였다. 여기에 공권력은 시신을 탈취하여 남원의 선산에 안장하여 동지는 죽어서도 편안히 눈감지 못하고 또 한번 죽음을 당하였다.

## ◎ 동지를 생각하며

이석규 동지는 지옥같은 생활을 묵묵히 이겨내며 학업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84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마산고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몇몇 직훈 동기들과 함께 입학했다. 이와 함께 5년짜리 재형저축을 붓기로 했다. 참혹하리만큼 가혹한 여건 속에서 그 나이 또래의 소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몸부림이었다. 학교에 가는 날이면 잔업, 특근, 철야에 지친 몸을 일으켜 채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숙소에서 30~40분씩 걸어서 마산행 첫차에 몸을 싣고는 또 다시 골아 떨어진다. 옥포에서 3시간30분을 달려 마산에 도착하면, 아침 7시40분에서 8시 무렵이 된다. 아침을 사먹고 9시10분에 수업을 시작하면 겨울에는 오후 4시30분, 여름에는 4시50분~5시에 끝난다. 다시 저녁을 사먹고 옥포로 돌아오면 이미 깜깜한 밤이 되는데, 이렇게 하루에 드는 비용만 해도 1만원이 되었다. 더욱이 회사에서는 밀린 일을 핑계삼아 방통고에 다니는 노동자들에게 수업때마다 「확인서를 떼어오라」 「특근, 잔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곤한 몸을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일터로 나가야 했다.

이런 사정 때문이었는지 84년초에 동지는 사내 기숙사를 나와서 장승포 주변에 있는 능포의 아파트 문간방에 동료 1명과 함께 입주하게 된다. 한달 월세 5만원으로 기숙사생활을 탈출해서 나름의 자유를 얻은 것이다.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은 일부가 기숙사에 살고 나머지 가족이 있거나 따로 나와 사는 사람들은 옥포, 옥림, 장승포(옥수동), 능포를 중심으로 세를 들어 살고 있다. 능포, 옥림 APT에는 주로 기능직 사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살고 있었는데, 동지는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포APT에 새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성격이 온순하고 내성적이어서 초기에는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던 그는 옥포로 와서 이즈음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배웠다. 술 담배는 절대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적당히 했는데, 외출해서 술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일찍 들어가는 편이었다. 집 주인에게도 부모처럼 대하고 생활해서 「법이 없더라도 살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성실했다. 그는 나중에 87년 2월 장승포읍 능포아파트 5동 206호에 월세 3만원을 내고 혼자 옮겨 가 생활하면서도 검약한 생활을 버리지 않았다. 비키니 옷장 하나에 전기스탠드와 라디오, 2단 책꽂이에 꽂힌 몇십권의 책이 그의 전 살림살이였다. 책꽂이 위에는 「부지런하자, 낭비하지 말자」 「임무에 충실하자」 「배우는 자세로 임하자」라는 세가지 생활신조를 직접 써서 붙여 놓고, 틈틈히 시간을 내어 고향의 부모, 친척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외로운 마음을 달랬다. 아파트 주인 부부는 그가 평소, 검소하고 온순했으며 부끄럼을 많이 탔고 특히 방송통신강좌를 듣는 등 공부에도 남다른 열성을 갖고 있었다고 기억한다.

## ◎ 추모글

【시】

아침이 이슬을 털 때
오늘도 배고픈 하루는
메마른 새벽을 일으켜 세운다
앙금으로 굳어져가는
짓밟히던 억울한 세월
채 가시지 않은 슬픔이 많은 이땅
최루탄 파편으로
아스팔트위에 패댕겨쳐진
붉은피 가슴 붙들던
석규의 가난했던 삶
몸은 천근이나 무거워지고
비지땀 피눈물이 뒤섞여
뼈마다 앙상한 등허리 축축히
비가 내린다

참으로 인간다운 노동세상 언제?
밤마다
꿈꾸던 사람처럼 사는 세상은 어디?

일어서라
막힌 숨통 활짝 열어 젖히고
저 하늘 향하여
힘차게 외쳐라
자유롭게 사는 날을 위하여
인간답게 죽을수 있는 날을 위하여

【일지】

이석규 동지의 죽음과 노조설립
〈1987년〉
8월초 - "노조결성", "임금인상" 등을 외치며 농성 시작.
9일 - 결성대회 사장과의 면담 약속.
10일 - 회사의 기만적인 혼란 공작(불순분자가 침투했다는 등)약식 노조 결성대회.어용시비.
11일 - 노조결성대회 함. 노조설립 신고 필증 받아냄.
13일 - 회사측의 노조인정, 기만적인 협상 약속.
14일 - 회사측의 기만적인 태도에 노동자들 가두진출.
15일 - 사장과의 협상결렬.
21일 - 평화적 시위 선언.
옥포 호텔 앞으로 집결.(사장이하 간부들이

호텔에서 비밀리에 집무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22일 - 또다시 협상이 결렬되자 평화적 시위 선언. 옥포 호텔 주변에 3,000여 명 집결. 경찰들 무차별 진압(시위대와 전경과의 대치 거리는 불과 1미터도 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이석규 동지가 전경이 쏜 직격탄을 가슴에 맞으며 쓰러졌고 옥포 대우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후 3시 30분경 운명. 부검결과 우측 폐 손상 및 내출혈(출혈량 900cc, 4개의 구멍이 있음. 파편 2개 폐속에서 발견)

28일 - 장례식후 장지인 광주 망월동으로 향하는 운구행렬을 미리 야산에 수천의 병력을 매복시켜 놓고 광주와 마산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인 고성에서 덮쳐 시신을 탈취하고 집행부 전원과 참석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행사함.



# 이 석 구 墓

1980년 (주) 조흥택시 입사
1985년 노동조합 결성 하였으나 와해 됨
1987년 8월 31일 노동조합 재결성, 위원장에 선출
1987년 9월 2일 오후 8시경 회사측의 노조 탄압중지 요구에 대해 사장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자 이에 격분하여 신나를 끼얹고 분신
1987년 9월 19일 강남 시립병원에서 치료 도중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85년 조합을 결성하였으나 회사측의 방해로 와해되자 이에 굴하지 않고 87년, 35명의 기사들과 함께 민주노조 결성에 성공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고, 구사대를 통한 노조탄압에 맞서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자 87년 9월2일 택시위에 올라가 "노조탄압 중지하라"고 외친후 분신. 3도의 중화상을 입고 강남시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19일 새벽 3시 11분경에 부인과 5살과 10개월이 된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끝내 운명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너희들끼리 일어난 일이다.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고 발뺌을 하였고, 이에 분노한 유가족과 조합측은 고인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장례를 연기해오다 10월1일에야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

## ◎ 유고글

【호소문】

저는 조흥택시 노조 결성 후 노조 탄압으로 9월 2일 분신하여 9월19일 운명한 故 이석구씨의 부인입니다. 저희 가족은 5살과 10개월된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노사협의의원으로 있으면서 회사의 악랄한 탄압으로 노조의 필요성을 느꼈고 비밀리에 집에도 들어오지 못한 채 여관잠을 자면서 87년 8월 31일 노조결성에 이르렀습니다.

9월1일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9월 2일 회사에서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고가 있었으므로 이에 격분하여 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끌려나오자 몸에 신나를 뿌리고 사무실에 들어가 다시 대화를 요청했지만 또 거절 당하자 사무실 안을 세바퀴를 돌았지만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진정하라는 말은 고사하고 회사의 사주를 받은 비조합원이 사내자식이 죽으려면 죽지 왜 불을 못붙이냐며 자극을 주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조탄압에 의한 분명한 타살입니다. 직접 죽여야만 타살입니까? 이것은 분명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랄한 사장은 "죽으려고 불을 붙인 놈이 물 속에는 왜 들어갔느냐"며 야만성을 여지없이 들어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병원도 데려다주지 않았고 입원수속도 밟아주지 않아서 다음날 제가 회사에 찾아가 항의하자 오십만원에 차용증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이에 격분하고 돌아오자 결국은 조합원 기사분이 자기 이름으로 어렵 수 없이 차용증을 쓰고서 돈을 가져와 19시간만에 입원수속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후 사장은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치료비도 한푼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장의 태도에 저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어린 두딸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너무 억울함을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 김 수 배 (당시 28세)

1959년 6월 19일 부산출생
경남공고, 성균관대 졸업
1986년 6월 고려화학 입사, 실란트 기술부 근무
1987년 8월 노동조합 사무장
1987년 10월 16일12시40분경 자재 창고 앞에서 분신

## ◎ 동지의 삶과 죽음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예적 굴종의 삶을 박차고 노동자도 인간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87년 노동자 대투쟁. 들불처럼 번져가던 열기속에 고려화학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참담한 노동현실을 딛고 일어서려는 고려화학 노동조합 건설투쟁의 한 가운데에 바로 김수배 동지가 있었다.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나갔던 김수배 동지는 어려운 투쟁의 과정에서 동지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되었고 사측에서는 누구보다도 두려운 존재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무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당시 실란트 기술부 부서장이었던 모부장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던 김수배 동지에게는 서서히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다.

당시 노조에서 조합비를 징수하면서 일일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무장이 일괄해서 대리서명하였던 것을 배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당시 생산관리부 조합원 권모사원이 울산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으로 배후를 숨기며 자행되는 치밀한 탄압과 회유에 시달리던 동지는 사직까지 고민하는 엄청난 갈등에 시달려야 했다. 드디어 사문서 위조로 고발된 동지에게 10월 16일 오전 소환장이 접수되게 되었고, 당일 점심시간 동지는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담담한 얼굴로 도료 생산부로 발길을 옮겼다. 마침내 김수배 동지는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커다란 짐을 어깨에 잔뜩 짊어진 채로 투쟁의 불길로 솟구쳤다.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 김수배 동지는 도료 생산부에서 누가 볼새라 용제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자재창고에서 불을 당긴후 창고 앞으로 뛰어 나가 쓰러졌다고 한다. 숯검뎅이로 시커멓게 변한 동지의 시신은 눈을 감지 못하였다고 한다. 죽음으로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자본가들에게 항거한 김수배 동지의 정신은 당시 목격한 동지들은 물론 이후 고려화학을 입사한 조합원들에게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고려화학 노조의 정신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 ◎ 동지를 생각하며

1) 우리는 또다시 오늘을 맞이하였습니다.

1987년 10월16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온몸으로 항거하다 산화해 가신 김수배 동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동지의 원혼 앞에 한편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헌신하신 동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가슴에 맺힌 온갖 분노와 울분을 투쟁으로 승화시킨 동지의 유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8년전 모든 인간적 번뇌를 뒤로하고 투쟁의 길로 향하신 동지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1,800사우들은 경건해 집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1,800 노동조합의 그날, 기쁜 마음으로 열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2) 김수배동지는 이렇게 가셨습니다.

1987년 노동조합 건설의 불길이 전국 방방곡곡에 치솟아 오르던 그날!

우리 고려화학에도 자랑스러운 노동조합의 깃발은 세워 올려졌고 그 한가운데에 동지는 계셨습니다.

그당시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힘찬 활동을 벌여 나가시던 동지는 그 험한 투쟁의 과정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으며, 반면 사측에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측의 탄압은 동지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지에게는 드디어 무엇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지게 된것입니다.

"나를 불살라, 노동자를 노예처럼 취급하는 앞날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리라!"

드디어 동지는 끓어오르는 분노속에 굳은 결심을 하고, 뒤집어쓴 신나에 불을 당겨 다시는 못오실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숯검뎅이로 시커멓게 변한 동지의 시신은 눈을 감지 못하였으며, 염원하던 민주노조의 그날을 한으로만 남긴채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살아 계신 것입니다.

## ◎ 추모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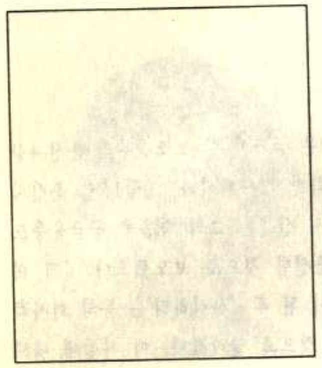
**【관련 기사】**

노조에 대한 탄압은 급기야 한 노조간부의 분신자살을 초래했다. 울산의 K화학 김수배씨가 10월16일 분신자살한 것이 그것이다. 당시 신문은 그의 죽음을 공금유용으로 고발되어 고민하다 분신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실제 내막은 김씨가 노조사무장이 된 후, '사직하라'는 등의 회사측 압력을 받아오다 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에 대해 가족들이 진상을 알리는 호소문을 배포하여 항의하자, 당황한 회사측은 9천여만원의 돈으로 가족들과 합의,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분신사건은 노사간의 분규가 과거와는 또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이다.

〈1988년 신동아 1월호에 실린 김수배 동지 분신기사〉

# 김 성 애 (당시 18세)

**墓 부평 공원 묘지**



**1986년 9월 12일 진흥요업에서 작업 중 화공약품에 의식을 잃고 반신불수**

**1987년 11월 3일 산재 중앙병원에서 산재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투신,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김성애 동지는 86년 9월12일 진흥요업(인천 주안동)에서 작업을 하던중 작업장내의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에 의식을 잃고 기절하여 뇌진탕으로 반신불구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회사측에서는 보상은 커녕 김성애 동지의 모친과 외숙을 불러놓고 동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졌다며 거짓말로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가족을 협박하여 산재처리를 해줄테니 추후 어떤 법적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뒤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인천 산업재활원에 입원중이던 김성애 동지는 이러한 고통 끝에 87년 11월3일 오후 4시10분경 병원 7층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김성애 동지는 꽃다운 18세의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 ◎ 동지를 생각하며

**전국의 산재 노동자 분노 치솟아**

본 진정인은 건강한 몸으로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가세가 빈곤하여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병석에 계신 부친의 병원비등이 엄청났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은 학업마저 중도에 포기하고 취업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20세도 안된 어린 나이에 작업장의 환경오염에 의해 졸지에 반신불수의 몸이 되고 보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민정당 총재 각하!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이 가녀린 소녀는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옳단 말입니까?

피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꺾인 것도 억울하고 괴로운데 설상가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의 모친과 외숙을 불러다 놓고 본 진정인이 고혈압으로 졸도한 것이니까 본 진정인의 가정 형편을 감안하여 크게 선심이라도써 주는 것처럼 소녀의 모친에게 겁을 주어 산재보험처리를 하여 주는 대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본 진정인의 모친과 친권자인 외숙으로부터 서명 날인토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가소로운 것은 완전범죄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인까지 붙여 합의각서인 증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재 각하!

법은 만민에게 공평하며 공정한 것이라 학교다닐 때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도 다 있습니까? 피 진정인은 악조건의 작업환경을 철저하게 위장 내지는 은폐하기 위해 무지몽매한 본 진정인의 모친과 외숙을 데려다 놓고 이 사건은 공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이 자비로서 치료하겠느냐고 잔뜩 겁을 주어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토록 강요하였으며 추후 법망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본 진정인의 모친과 친권자로 자처하고 나서신 외숙이 피 진정인과 같이 학력, 금력, 권력 등을 골고루 갖춘 같은 수준의 어른들이었다면 소녀로서도 아무말 하지 않겠습니다. 못 배우고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와같은 악조건을 약점잡아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고 또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와같은 짓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회사의 배려가 고맙기까지 하더라는 진정인의 모친과 외숙의 순박한 말씀이 소녀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하였습니다.

〈생전에 김성애양이 민정당에 보낸 진정서 中에서〉

## ◎ 추모글

【당시 속보(소식1)】

노동부, 산재노동자를 우롱하지 말라!

노동부는 11월2일 산업재해환자들에 대한 전체 피고용인의 일정 비율이상 의무적 고용, 내년 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 산업재해자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60%지급에서 67%로 인상 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산재노동자들은 이번 발표가 산업재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기 보다는 선거를 앞둔 기만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산재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

【당시 속보(소식2)】

전국 모든 산재노동자 여러분!

김성애양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두운 병실에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모두 단결합시다. 고 김성애양의 죽음을 추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장례식을 거행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덕 기업주와 독재정권에 항거합시다.

모든 애국시민 여러분!

노동자의 고통은 이 나라 국민의 고통입니다. 노동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한 민주사회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단결하여 노동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투쟁합시다.

## 박 응 수 (당시 28세)

墓 충남 대덕군 산내면 하소리

1959년 12월 1일 박대응씨의 7남매중 넷째로 출생
대전 계룡공고 졸업.
경북 왜관에서 카츄사로 군복무
1982년 6월 투라가구(주)에 입사하여 성실한 노동자로 생활함
1987년 12월 5일 대전역 앞에서 분신

### ◎ 동지의 삶과 죽음

박응수 동지는 대통령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시위와 야당 당사내 농성, 서명운동이 잇따르고 있던 1987년 12월5일 오전 10시경 충남 대전시 중동 홍명상가 앞 광장에서 민주당 청중동원용 버스에 올라타 사람들을 내리게 한 뒤 대전역 광장으로 버스를 몰고가 경찰과 대치중 "후보단일화 하라"고 절규하며, 버스와 몸에 신나를 뿌리고 스스로 불을 붙혀 민주의 제단앞에 산화하였다.

분신직후 경찰에 의해 대전 을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정권의 재집권에 광분한 살인군부독재는 영안실 주위를 전경들로 에워싸 동지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조문객들에게 위협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졸지간에 자신들의 자식형제가 유명을 달리한 비통과 오열속에서도 동지의 명복을 온 국민과 더불어 빌고자 민주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결정하고 준비하던 유가족 장례위원회에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를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거액의 금품으로 회유코자 했으며 이것도 여의치 않자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평소 정신이 이상했다. 나라 망하게 지랄했다.'는 등의 악의에 찬 비방과 헛소문을 퍼뜨리며, 향후 보복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온갖 추악한 범죄짓을 일삼았으며, 결국은 동지의 의로운 죽음을 지키겠다고 몰려든 학생과 시민을 향해 전경을 동원, 최루탄을 난사하며 시신을 강제로 탈취하는 천인공노할 폭거를 자행했다. 놈들은 많은 애국시민, 학생들을 강제 연행하는 등 동지의 유가족들과 강제분리시켜 12월8일 밤 10시 30분경 충남 대덕군 산내면 하소리에 삼엄한 경비 속에서 야밤도둑 매장을 감행하였다.



## 이 대 건 (당시 32세)

墓 경남 창녕군 대지면

1956년 6월 16일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에서 출생
1978년 상은(주)에 입사
1981년 5월 10일 마산 (주)우성택시 입사
1988년 1월 6일 파업농성 19일째에 협상이 결렬되자 단체 협상 위반에 항의하며 회사 앞에서 분신
1988년 1월 8일 부산 복음 병원 중환자실에서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우성택시 90여 조합원들은 87년 11월24일부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4개 노조 노동자들과 연대파업을 벌여왔는데 성과없이 끝나자 88년 1월6일 파업 19일째에 임금협상 조기체결 및 단체협약 조항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중이었으나 회사측은 교섭에 소극적이고 노조측의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노조의 양보만을 요구, 협상과정을 지켜보던 동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신을 감행하면서 조속한 요구수락을 촉구하였다. 평소 동지는 조합활동을 열성적으로 해왔으며 파업시에도 유인물, 벽보제작을 도맡아 해오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싸워왔다. 그리고 사경을 헤메는 가운데서도 회장에게 "배가 고파서 죽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하러 왔느냐, 보기 싫다. 당장 나가라"고 외치며 분개하는 등 운명 직전까지 투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 ◎ 동지를 생각하며

파업이 일어나자 회사는 노조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조합제명자와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목욕탕 수도꼭지를 쇠톱으로 잘라내고, 전기 배선을 끊게 하였으며 금전을 지급하여 파업을 더욱 조장하는 행위만을 하였고, 24개 회사 대표들은 소유 차량 1대당 10만원씩의 공탁금을 걸어놓고 단체활동을 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 12월31일 밝혀지자 노조측에서도 우성을 살리자며 운행자에 한해 매일 1인당 천원씩의 성금을 걷어 파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1월6일 오후 4시부터 회사 회의실에서는 공개토론 형식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주요 쟁점이었던 징계자 전원해고에서 주모자 선별해고로 양보하였으나 회사측이 노조측이 양보할것만을 요구하여 회의가 지연되자, 이를 지켜보던 이대건 동지는 오후 6시30분경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부산 복음 병원으로 옮겼으나 1월8일 0시53분 절명하였다.

조합원들은 1월8일 새벽, 시신을 우성택시로 모시고 회사 내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산화한 동지의 뜻을 결코 헛되이 않겠다."며 요구조건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맹세하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장례가 끝날때까지 시신을 지키자며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는데, 팽팽히 맞서던 노조측과 지노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장례는 1월12일 12시, 유가족, 동료 조합원들, 타회사 기사들의 애도 속에 경남택시 분실장으로 치루어졌다.

### ◎ 추모글

【결의문】

**이대건 동지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결의**

빼앗긴 우리 조합원의 권익과 임금인상 등을 위해 오랜동안 함께 투쟁해 온 우리의 이대건 동지가 계속적인

화사측의 무성의 함에 항의하며 분신, 지난 8일 원통하게 도 절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대건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이홍우는 이대건 동지가 숨을 거둔지 이틀이 지나도록 이대건동지를 비롯한 전조합원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영령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례 및 사후보상에 대책은 물론이고, 이대건 동지의 마지막 유언인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마저도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대건 동지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조합원들은 피끓는 분노와 함께 이대건 동지의 마지막 유언인 "현행 단체 협약 준수"와 그에 따른 "비노조원 15명 및 김시욱 전무 해고시킬 것" 그리고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대당 10만원의 공탁금을 해체시킬 것" 등의 제반 9개 요구 항목을 관철시키고저 마창지역 24개 전조합원들은 물론 이대건 동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강력히 실력 행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우 리 의 결 의

1.우리는 이대건 동지의 죽음이 전조합의 권익쟁취를 위한 처절한 몸불임이었던바, 그 못다한 뜻(요구사항)과 인간적인 사랑의 정신에 따르고자,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이대건 동지의 죽음이 회사측의 고질적인 노조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희생인 바, 이를 규탄하는 투쟁에 온몸을 던질 것을 결의한다.

1.노동부 마산 사무소를 비롯한 관계행정당국의 무성의 함에 항의 하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에 임할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이대건 동지의 죽음이 단순한 한 조합원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전조합원의 죽음이며, 마산, 창원 지역 24개 택시노조 조합원의 죽음이며 나아가 이지역 전체 근로자, 고통받는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의 죽음인 바, 제 2, 제 3의 이대건 동지와 같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대건 동지의 죽음에 항의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공동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이대건 동지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투쟁에 있어서 이대건 동지의 뜻을 꺾고 회사측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동조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 어떠한 희생에도 불사하고 이에 강력히 맞서 필사 항전할 것을 결의한다.



# 정 경 식 (당시 29세) 墓

| | |
|---|---|
| 1959년 12월 15일 | 경남 의창군 진동에서 출생 |
| | 삼진중 졸업, 한독직업훈련원(현재 부산기공)에 다니다 |
| | 1년만에 가정사정으로 중퇴 |
| 1984년 |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 입사 |
| 1987년 5월 26일 | 노조지부장 선거운동에 참여 |
| 1987년 6월 8일 | 실종 |
| 1988년 3월 2일 | 창원 불모산에서 유골로 발견됨 |

## ◎ 동지의 삶과 죽음

정경식 동지는 3년동안의 월급으로 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저축할 정도로 검소하고, 생활력이 강했으며 동료 노동자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원만하였다고 한다. 기숙사 생활 중에도 놀러갈 때는 빠짐없이 집으로 연락했으며 월급을 타면 집에 꼬박꼬박 맡기고, 용돈을 타 쓸 정도로 성실했다. 정 동지는 노동자로서의 의식도 투철했는데 86년 5월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 팔을 다쳐 4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을 때, 문병온 동료들에게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특히 젊은 층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퇴원한 이후부터는 노조를 민주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다.

## ◎ 사건경위

### 민주노조 하자는데 의문사가 웬말이냐

1) 실종전 대우중공업 지부장 선거관계- 정경식 동지 실종 살해사건의 배경

1987년 5월15일경 대우중공업 창원 공장에서는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로 들뜬 분위기 였다. 노조 지부장 선출은 간선제로, 선거일이 5월26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효영씨가 후보로 나선 젊은층 중심의 민주노조 건설측과 서석교씨(52년생, 수년전에 미국에 가 있다가 노조지부장 선거 전에 귀국하였다 함)측이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정경식 동지는 김효영씨의 선거운동을 열성적하였다.

5월26일 서씨가 6:5로 지부장에 선출되었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홍고식씨(정 동지와 입사 동기생이며 기숙사의 방을 같이 썼음)가 서씨를 지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이후 이동석씨(홍고식씨를 매수하여 서석교씨의 선거활동을 하게 하였다는 소문)는 노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5월28일 퇴근길에 정 동지는 홍씨에게 "노동자는 노동자 편에 서서 단결하는 것이 옳지, 회사편에 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고, 이씨에게 "얼마나 돈을 먹고 회사편을 드느냐"고 말하자 이동석이 정동지를 떠밀었다.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정 동지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씨의 코에 머리가 부딪혔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주변 동료들과 약간 충돌이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씨는 3주진단을 끊어 창원경찰서에 정 동지를 고소했다. 이씨는 정 동지에게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정 동지는 이씨의 합를 거절하였다.

2) 실 종

6월8일 정 동지와 홍씨가, 이씨가 있는 기숙사(106호)에서 만나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결렬되고 이씨는 15분만에 먼저 떠나고 2시간후 정 동지와 홍씨도 기숙사를 나왔다고 한다.(이는 홍씨의 증언으로써 목격자가 없다) 기숙사를 나온 후 정 동지는 차를 기다렸고, 홍씨는 잠을 잤

다고 한다(후에 공장에서 일했다고 번복). 이후 정 동지를 본 사람이 없고, 6월9일 정 동지의 집으로 정 동지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후 정 동지의 어머니는 회사와 홍씨에게 물어 보았으나 별 대답을 못듣고, 11일 창원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시킨 뒤 각계에 진정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정 동지 어머님은 회사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노무부장 상병수로부터 "정이 약을 먹고 죽었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9월27일 정 동지의 어머니가 이동석씨에게 "네가 내 아들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씨가 "그렇다"고 3번 반복하여 대답하였다. 10월3일 정 동지 어머니와 형이 이씨를 파출소로 끌고가자 경찰이 이씨에게 "왜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고 나무라며, 이들을 쫓아냈다. 이씨는 어머니에게 "회사에 말하면 500만원만 들이면 너를 죽일 수 있다"고 했다 한다.

3) 시신발견-제1차

12월12일, 창원시 동성동 천주산 관유사 부조에서 벌목중이던 수목 전지사 이용우, 이순우, 강증열, 이명환씨 외 성명불상 1명이 변사체를 발견하였다. 발견된 당시 사체의 상태는 "검은 색 머리카락이 두 개골에 15개정도 붙어 있었으며, 농약병은 낙엽에 쌓여 꼭지만 보였다. 시계는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는데 파란판에 좀 두꺼운 세이코였다. 아래 턱뼈가 두개골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고, 이빨에 앞니 2개가 있었다. 유골 전체는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다. 뼈는 하얀 색깔인 것으로 보아 죽은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체인 것 같다"고 최초 발견자는 증언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창원 경찰서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채 사체 검시를 하였고, 검시 결과 두개골에 흰색 모발이 붙어 있었고, 이빨이 없는 상태로 "50세 이상이고, 5년이상 지난 변사체"라고 규정하고, 정경식이 아니라며 가매장 시켰다.

이후 가족의 재조사 요구에도 정경식 동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오른팔 뼈(정경식 동지는 팔이 골절되어 철사를 박은 흔적이 있다고 함)와 이빨이 없다(처음 발굴자는 분명히 보았다고 함)는 이유로 정경식 동지와 결부시키지 말고 단념하라고 협박하였다.

그 뒤 가족의 끈질긴 주장에 가매장된 사체를 다시 확인해 보니 두 개골의 반정도만 흰 머리카락을 접착제로 붙인 흔적이 뚜렷하였고, 오른쪽 상완골에 상처가 나 치유된 흔적과 팔목에 쇠를 없앤 흔적이 보였다. 발견 장소에는 흑색머리카락이 한줌 짤라져 있었다고 한다. 이는 사체조작 흔적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88년 2월23일 발견한 사체를 정경식의 사체가 아니므로 수사를 종결짓자고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해왔다.

4)시신발견-제2차

1988년 3월2일 "삼성항공 2공장 옆 야산(불목산)에서 산불방지 요원이 변사체를 발견하고는 현장에서 출입증을 주워보니 정경식이란 이름이 있어 회사측으로 연락이 와서 전화한다"는 요지로 국민운동 경남 본부에 전화가 걸려왔다. 가족과 정경식 실종사건 경남대책위 관계자, 경찰, 안기부 검시의사 등이 현장 검증을 하였다.

현장 입구 밑으로는 산불이 전혀 나있지 않았으며, 뼈가 사방에 널려져 있었다. 두개골에서 조금 위쪽으로 팔뼈가 두 개 놓여 있었으며, 그 위쪽으로 밤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아래 바위 밑에 철심을 박은 팔뼈가 하얀 색깔로 퇴색되어 놓여 있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국방색 멜방끈이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정 동지가 나무목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결정, 사건을 종결시켰다.

### ◎ 의문점

1. 합의금 150만원이 없어서 비관 자살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점!

정 동지는 2년간 검소한 생활을 하여 800만원을 저축했고, 싸움의 발단이 지부장 선거와 관련된 우발적인 싸움으로, 이 후보진영에서 합의금을 주기로 했으므로 돈이 없어 비관자살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조사이다.

2. 출입증 상태에 대한 의문점

산불요원이 주워 신원을 확인했다는 출입증이 9개월간 야산에 방치되어 있었는데도 깨끗이 보관되어 있었고, 정 동지는 당시 출입증을 옷에 부착하고 있었는데 불로 인해 재만 남은 유골위에 손상없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유골이 있는 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 같다.

3. 유골발견에 대한 의문점

유골 발견현장은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87년 6월8일 정경식 동지가 목을 메 자살했다고 가정한다면 밤 수확시기인 가을이나 성묘객들에 의해 충분히 발견되었을 곳인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사체가 발견된 곳은 친족인 정차식씨가 87년6월 마을사람들과 수색을 벌이다 바로 위의 돌에서 담배를 피운 장소이다. 따라서 그때 유골이 없었던 것은 정 동지가 다른 장소에서 죽어 이송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4. 자살현장에 대한 의문점

이곳이 자살현장이라면 유골의 모양이 인체의 구조 형태로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이며, 검안의사의 말이 이 유골에는 "동물이 침범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유골이 가로 13M, 세로 8M 이상 되는 면적에 방대하게 뿌려지듯 흩어져 있는데 자연적으로 흩어질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큰 어깨뼈가 가면 손가락뼈도 따라가야 하는데 잔뼈는 한곳에 뒤섞여있다는 것은 자연현상을 무시한 인간의 소행이라 본다.

5. 목을 매었다는 나무에 관한 의문점

목을 매었다는 끈이 묶여 있는 나무는 직경이 4cm의 밤나무로 이 나무에 목을 매었다면 나무가 휘어져 발이 땅에 닿거나 부러지게 되어있어 도저히 자살을 기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끈이 묶인 나무가지는 혼자의 힘으로는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위치해 끈을 묶을 수도 없는 높은 가지였다. 또한 나무에서 목을 매었다면 나무가지에 끈이 묶인 흔적이 남아야 되며, 묶인 자리가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해 감정을 요구했으나 검찰당국의 명백한 해명이 없었고 며칠 후 경찰에서는 부모의 항의를 받고 가지를 잘라가 버리고 말았다. 이는 증거인멸의 기도에서 행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6. 사체의 자연노출에 대한 의문점

아래턱뼈에 이빨이 빠져 없었으며 270여일이 지나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빨이 빠진 자리에 이물질이나 흙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깨끗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분명 사체가 밀폐된 장소나 공간(햇빛과 바람이 차단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7. 신발의 상태와 발견장소의 의문점

나무에 목을 매었다면 사체가 부식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발 한짝만 사체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었고, 신발은 대체로 깨끗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것 같은 상태였다. 또한 신발 끈은 발등에 끈이 꽉조여져 있었고 잡아당긴 끈이 위로 쑥 올라와 있음은 타인이 신발 끈을 잡고 옮겨놓지 않고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8. 목을 맨 끈에 대한 의문점

나무에 매달려 있던 끈은 국방색 멜방끈으로 9개월 동안이나 자연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었다면 당연하게 색깔이 퇴색되어야하나 원색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산불로 인해 옷가지 등이 불에 다 탈 정도면 나무에 매달린 끈 또한 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수많은 참여객들의 눈에 의혹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9. 목격자가 없다는 의문점

정경식 동지가 1공장에 들어 갔다가 나갔다고 하나 당사자 이동석과 홍근식 외에 다른 사람은 만난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하는 것이다.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의문인 것이다. 땅속 지하실로 가지 않았다면, 왜 목격자가 사건 당사자 밖에 없단 말인가?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동석이는 유족과 만남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이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진실로 정경식 동지가 자살을 했다면 지금까지 가족과 이 사건에 대해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상의 의문점을 살펴볼 때 정경식 동지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추정되며, 다른 곳에서 이곳에 사체가 유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과 87년의 정치상황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타살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볼 수 있다. 87년 6월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 움직임은 마산, 창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노동현실의 벽을 허물려고 봇물처럼 터져나온 현실을 본다면 노조선거와 관련, 고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한 노동자의 죽음을 은폐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었다.

# 김 장 수 墓

1987년 6월 15일 인천 경기교통 노동조합 조합장 활동 중 해고
1988년 3월 1일 오후 8시경 회사내의 부당해고에 맞서 단식 농성 중 분신
1988년 3월 9일 전신 70%, 3도 화상을 입고 오후 8시 15분 운명

## ◎ 동지의 삶과 죽음

경기교통 노동자들은 87년 6월15일 김장수 동지를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하였고, 김장수 동지는 조합장으로 피선되었으며 근거없는 최종렬(총무) 동지의 해고조치에 대해 8월16일부터 6일 동안 파업농성을 벌여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회사는 조합내부의 분열을 조장, 김장수 동지를 몰아내고, 88년 2월24일에는 김장수 동지와 공석용 동지를 해고 예고조치하였다. 이에 김장수 동지와 공석용 동지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자행된 부당해고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투쟁을 해왔다. 그런 가운데 김장수 동지는 3월1일 회사에 단식농성하러 갔다가 오후 8시50분경 분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9일간의 투병기간 중 9일 오후 8시15분에 운명하였다.

## ◎ 동지를 생각하며

누가 우리 형제 김장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인간 김장수! 경기교통소속 택시기사. 그는 운전대를 잡고 거리를 누빈. 그러면서도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자신의 품을 판 대가로 월급을 받아 먹고 살아야 했던 틀림없는 노동자였습니다. 아니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보장받으며 당당히 주인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조활동을 했고, 투쟁을 했고, 조합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원들을 이끌었던 모범적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서 월세를 살고, 신혼부터 부어오던 적금을 해약하여 활동비로 쓸 만큼 헌신적인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똑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라는 사실이 악덕 이상철이 김장수 동지를 악랄하게 괴롭히고, 동료 조합원들과 이간시키고, 해고시키게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자를 사장의 돈을 벌어주는 수단 쯤으로나 알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당연한 권리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못보는, 파렴치하고 야비한 악덕 기업주 이상철, 그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줄기차게 투쟁해 오다가 그 막바지에서 김장수열사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사른 것입니다.

## ◎ 추모글

【성명서】

인천 노동형제 여러분!

지금 가족들은 연로하신 아버님까지 나서서 "김장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옳게 해결 안되면 나라도 분신한다"고 하실 만큼 굳은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교통 조합원들이 더 나아가 인천택시의 전조합원이 "김장수 동지를 살려내라. 그의 투쟁을 헛되이 말자"고 결의하며 '인천택시'와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도 그리고 인천지역 민주노조들도 지원을 하고 연대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노동자는 하나, 그래서 싸우고 단결하는 목표도 하나입니다.

일어섭시다. 그리고 어떠한 탄압과 반노동자적 세력에 대해서도 위대한 단결로 전진, 투쟁합시다. 그리고 기필코 승리합시다. 이미 우리는 나약한 옛날의 우리가 아닙니다.

김장수 동지가 부르짖었던 해고없는 세상! 노동자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인천택시에 모여 많은 것을 배웠다.

말로만 듣던 단식투쟁을 실제로 체험 해보고 느꼈으며, 더 큰 수확은 연대투쟁의식이다.

현재까지는 이론과 실제 모순, 타협의 갈등, 합리와 불합리 속에서 자기를 감추려던 우리가 모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미덕 속에 굳게 뭉쳐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큰 발전이며 앞으로 인천지역 민주노조 발전에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성진기업노동조합 김 명운〉

【규탄서】

"KBS의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운수노동자, 시민 여러분!

3월16일 밤12시 'KBS 보도본부 24시' 프로에서 "16일, 4천 5백만원이 제시되어 17일 유가족과 회사측이 만나 합의키로 했으며, 인천지역 택시의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갔다. 아니 이게 웬 뚱딴지같은 소린가? 유가족대표와 임시장례투쟁대책위는 당일 공식적으로 그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으며, 종일 영안실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실무근의 보도가 나갔는가?

운수노동자, 시민 여러분!

유가족과 동료기사들은 지난 3월 1일 열사의 분신 이래, 보상을 받으려 싸워오진 결코 않았고, 우리가 요구한, 그리고 열사의 뜻을 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고자 복직이다.

그동안 노조를 만들고 열심히 조합활동을 해 온 노동자들이 악질기업주와 정부당국에 의해 얼마나 많이 해고를 당해왔던가? 이렇게 노조탄압의 하나로 행해진 부당해고가 바로 김장수열사를 분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유가족과 경기교통 동료 기사들은 무엇보다도 중심적인 것으로 해고철회를 내세웠다. 이와 더불어 악덕 기업주 이상철이 관과 결탁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고 일간지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할 것과 경기교통의 구사대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보상문제는 앞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거론하기로 분명히 말해왔다. 그럼에도 관계당국과 악덕기업주 이상철은 마치 보험금에 관심이 쏠려있는 것처럼,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문제만을 떠들어 왔으며, 드디어는 매스컴에서도 보상문제가 협상이 안되는 핵심적인 문제인 것처럼 왜곡시켰다.

이제 우리 유가족과 임시장례투쟁대책위에서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요구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혔다. 그리고 15일에 결정된 인천택시의 총파업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 이 결정은 김장수열사의 분신항거가 개인적인 보상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준, 눈물겨운 6000여 기사동료들의 결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관계당국과 왜곡보도의 관제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운수노동자, 시민 여러분!

어떠한 관계당국 및 관제언론의 분열책에도 현혹되지 말기 바라며, 조합장들이 공식적인 총파업결의 철회를 하지 않는 한, 그 결정에 따라 하나가 되어 싸우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더 이상 열사의 시신을 차디찬 냉동실에 방치해두지 말고, 그 뜻이 안타까운 메아리로 허공에 떠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 빨리 관철되도록 전 6000여 택시기사들과 뜻있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자. 단결된 투쟁으로 기필코 열사의 뜻을 따르자. 이후 모든 문제의 결정은 가족대표, 경기교통기사대표, 조합대표 3자가 함께 공식합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행위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1988년 3월 17일

유가족 대표 : 김 정수(형), 김 정자(동생)

故 김장수열사 장례투쟁 임시 대책위원회